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생의 주인이시며 절대자로 여기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노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로마서 14장 22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8년 6월 9일 (토) 제 1685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서유럽 크리스천, 미국 “넌스” 와 비슷

CT, 퓨리서치의 서유럽 15개국 24,000명 종교적 신념 등 설문조사 보도

1년에 한 번도 교회에 가지 않아도 자신을 크리스천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소위 “명목상 크리스천”으로 불리우는 이들은 지구촌 어디에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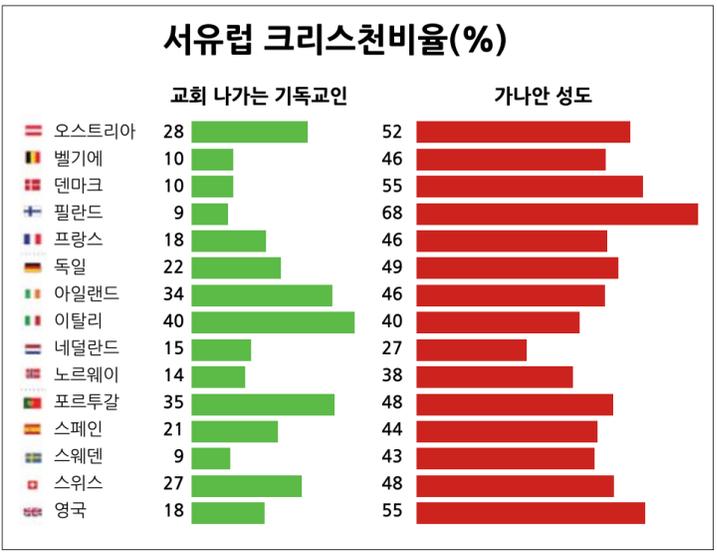
퓨리서치는 서유럽 15개 국가(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들에 거주하는 2만4599명을 상대로 무작위 전화 설문한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설문은 교회출석 기독교인인지, 가나안성도인지, 비종교인인지로 나눠 진행됐다(Being Christian in Western Europe: The majority of Europe's Christians are non-practicing, but they differ from

religiously unaffiliated people in their views on God, attitudes toward Muslims and immigrants, and opinions about religion's role in society). 그 결과, 교회에 안 나가고,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를 많이 안 해도,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크리스천리티투데이(CT)는 이러한 서유럽 크리스천들의 특징들이 놀랍게도 미국의 “넌스”와 아주 비슷하다고 평가한다(Western Europe's Christians Are As Religious As America's 'Nones': However, Pew researchers find Christianity across 15 countries is “not just a 'nominal' identity devoid of practical importance”).

미국은 과거 교회에 다녔지만 지금은 어떠한 종교적 관계를 갖지 않는 ‘넌스(Nones)’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언론은 미국교회에 위기가 왔다고 한동안 요란하게 이 사실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제도화되고 공식적인 종교를 버렸지만, 종교나 영성은 아직도 자신들의 삶에서 중요한 영역이라고, ‘넌스’들은 인정한다.

서유럽에서도 자신을 크리스천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제도적이거나 가시적인 교회 건물에 나가지는 않지만, 기독교적 가치는 아직도 우선순위가 된다. 그렇다면 미국의 ‘넌스’와 서유럽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비슷한지 퓨리서치 설문 결과들을 통해서 알아보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미국 넌스들 27% vs. 서유럽 크리스천들 23%
△일상에서 종교는 아주 중요하다: 미국 넌스들 13% vs. 서유럽 크리스천들 14%
△매일 기도한다: 미국 넌스들 18% vs. 서유럽 크리스천들 18%



목상, 또는 이름뿐인(nominal) 크리스천의 실제 신앙적 행위가 있는가를 물어보면 된다. 서유럽 15개 국가에서는 평균적으로, 10명 중 7명은 자신들을 크리스천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대부분이 말 그대로 명목상, 무늬만 크리스천이었다. 놀랍게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주일예배를 드린 크리스천은 10명 중 2명 즉 20%에 불과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2015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한 주에 한 번 이상 교회에 가는 크리스천들은 36%로, 1940년 조사 당시 37%

에서 불과 1%만이 감소했다. 한마디로, 미국 크리스천들은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서유럽 경우에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이름뿐인 크리스천”들이 증가한 것이다. 얼마전 전통적으로 독실한 카톨릭 국가였던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낙태 허용이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통과된 것도 이러한 흐름과 일맥상통한다. 서유럽 성향이 더욱 진보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3면으로 계속)



대중매체 아닌 소셜미디어... 잘 알고 사용해야

처리리더스.컴, 교회가 SNS 사용시 잘못하는 7가지 실수 소개

세계인들 대부분이 SNS에 하루의 상당 부분을 할애한다는 것에 교회 목회자(leader)는 집중하고 또 이를 알아야 한다. 여기엔 세계 1위와 2위 경제국도 포함된다. SNS는 교회 목회자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편을 직접 보내거나 광고에 엄청난 돈을 쓰지 않고도 마우스 클릭 한번만으로 교회가 넓은 공동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상 이런 소통 출구는 없었다. 그러나 클릭 한번만 하면 된다는 것이 교회가 SNS를 잘 쓰고 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실, 많은 교회가 공통적으로 하는 실수를 보게 된다. 교회가 SNS를 할 때 유의해야 할 7가지 실수를 살펴보자(7 Ridiculously Common Mistakes Churches Make on Social Media).

SNS를 방송에 사용

교회 목회자는 SNS를 TV 채널처럼 다루기도 한다. 무엇을 말하든, 사람들이 듣고 콘텐츠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대중 매체(mainstream media)다. SNS는 한 가지 이유에서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다. ‘소셜(social)’, 다시 말해 ‘사교적’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사실이기도 하다. 여러 교회가 소셜 미디어를 전화기로 사용하기보다는 확성기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된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니지 않는 사람이 접근하기 쉬운 언어인가를 돌아봐야 한다. 말하고 있는 바가 교회에서만 통하는 언어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전략 부재

계속해서, 여러 교회가 전략이 없다는 걸 보게 된다. 하품이 나오게 하는 부적절하고 심심한 정보를 올리지만 한다. 이윽고 SNS로 다가가려는 전략 계획이 있다면 SNS가 어때야 할까? 그때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한다.

부정적인 모습

어떤 교회는 세상에 동의하는 것이 아닌, 반대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SNS를 사용한다.

청자를 배려하지 않는 언어

청자를 위해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지 생각해야 한다. 쓰고 있는 언어가, 본인의 지지자 친구 중에 교회를 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p>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p> <p>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렘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p>	<p>ATS 정회원</p> <p>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p> <p>www.wmu.edu</p>
--	---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기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346-0030 5 Brink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핸드폰) 347-952-5442 1-800-404-1171 E-mail: gopel@mail@hotmail.com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던 Forever 우표 (행정 가격변동 없음)가 곧 6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가 38센트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aboookusa.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p>시론 은희곤 목사</p>	<p>2면</p>	 <p>인/터뷰 송정명 목사</p>	<p>16면</p>
--	-----------	--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 세미나

주제 : 목회자와 여성사역자의 위치와 역할

- 일 시: 2018년 6월 18일(월) 오전 10시
- 장 소: 퀸즈장로교회 양순관

- 오전 강의 : 이종식 목사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담임)
“이민교회 여성도와 여사역자의 위치와 역할”
- 오후 강의 : 양춘길 목사 (필그림선교교회 담임)
“선교적 교회와 여성 리더십”

[강의 시간]	
오전강의	10:00 – 12:00
질의응답	12:00 – 12:30
점심식사	12:30 – 01:15
오후강의	01:30 – 03:30
질의응답	03:30 – 04:00

이스라엘 젊은 세대들 “엑소더스” 가속화

뉴스위크, 건국 70년 이스라엘의 젊은 두뇌유출 현상 보도

지난 4월 이스라엘 중부에 사는 부모가 건국 기념일을 축하할 준비를 했을 때 라헬 호할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모든 이스라엘인의 꿈'을 실현할 준비를 마쳤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미국 시민이 되는 의식에 참석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인이 최소 100만 명에 이른다. 인구 880만 명인 이스라엘이 국가 개조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이스라엘인이 호할처럼 해외로 나가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질 전망이다.

이스라엘은 5월 14일로 건국 70주년을 맞았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지금 국가의 존립이 위협 받는 실존적 위기에 처했다. 이

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나 팔레스타인인의 봉기와는 관련 없는 위기다. 비싼 물가와 생활비, 낮은 임금, 정치적·인구적 불안 추세에 낙담한 이스라엘인 중 다수가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나라를 떠나고 있다.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런 젊은 이스라엘인 대다수가 이주하는 미국 도시도 물가가 비싸긴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적어도 미국에선 더 나은 삶을 얻을 기회가 많다고 생각한다(MORE ISRAELIS ARE MOVING TO THE U.S.-AND STAYING FOR GOOD).

분석가들은 데이터가 그런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말한다. 미국 국토안보부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06-2016년 이스라엘인 8만7000명 이상이 미국 시민이 되거나 영주권을 얻었다. 1995-2005년의 6만6000명에서 상당히 증가한 수치다. 게다가 여기에 합법적인 경로를 밟아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받는 이스라엘인만 포함됐다(많은 이스라엘인이 일시 체류를 허용하는 관광·학생·취업 비자를 받아 미국에 도착한 뒤 눌러 앉는다고 알려졌다). 미국 외에 유럽, 캐나다 등 다



해외 거주 이스라엘 인재들을 확인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줌으로써 그들의 귀국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정부 기구인 이스라엘 혁신청의 사회 도전부를 이끄는 나오미 크리거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9개월 만에 중단됐다. 그런 노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벤-다비드 교수는 “학자나 이런저런 단체를 이스라엘로 데려오려는 정부의 노력은 밀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고 말했다. “예산만 많이 드는 그런 프로

비싼 물가, 낮은 임금, 정치 불안, 초정통 유대주의 강조 탓

른 곳으로 이주한 이스라엘인도 수십만 명에 이른다고 이스라엘 이민국이 밝혔다.

이스라엘의 두뇌유출이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뛰어난 학자와 연구자 다수가 미국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임금이 훨씬 높고 명문대학에 일자리가 더 많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의 경제학자 단 벤-다비드 교수에 따르면 이스라엘 과학자의 해외 이주율이 서방 세계에서 가장 높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반 젊은이도 그 대열에 합류하는 추세다. 과거 해외로 이주한 이스라엘인 중 다수는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이 강하지만 요즘의 이주자는 이스라엘에선 아예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스라엘은 ‘스타트업 천국’으로 알려졌다.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일인당 기술 신생업체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일반인은 그런 번창하는 부문과 거의 관련 없다.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첨단기술 부문에 종사하는 이스라엘인은 인구의 8%에 불과하다. 그들의 월 소득은 국가 평균인

2,765달러(세금 징수전 액수)의 7배에 이른다.

이스라엘은 서방 세계에서 빈곤율이 가장 높고, 소득 불균등이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다. 다른 한편으로 생활비는 가장 비싼 편에 든다. 텔아비브는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 중 9위로,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보다 높다. 물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 이스라엘 성인의 87%(그중 자녀를 가진 사람이 많다)가 상당한 금액의 생활비를 부모에게서 지속적으로 보조 받는다.

2011년 여름 이런 경제 압력이 거리로 분출됐다. 젊은 이스라엘인 약 50만 명이 몇 달 동안 높은 생활비와 낙후된 의료·교육 시스템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 후 이스라엘 지도부는 해외로 이주한 고학력자들의 귀국을 유도하기 위해 수억 달러를 투자했다. 그러나 전문가 평가에 따르면 예산 낭비였다. 2011년 이스라엘 정부는 3억6000만 달러를 들여 I-CORE를 시작했다. 외국에서

활동하는 많은 이스라엘 학자를 자국 대학으로 데려오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실적이 너무 저조해 3년 만에 폐지됐다.

예루살렘 소재 히브리대학의 바라크 메디나 총장은 박사 과정 유학을 떠난 이스라엘인 중 20%만이 귀국해 이스라엘 대학에서 일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에선 급여가 낮고 생활비는 비싸기 때문이다. 귀국한 교수가 얼마 안 가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간 경우도 적지 않다고 메디나 총장은 덧붙였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한 것과 실제로 얻는 것 사이에 차이가 컸다.”

2013년 이스라엘 정부는 ‘두뇌유입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램보다는 나라 전반을 확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

예루살렘 출신인 리노이(21, 성은 밝히지 않았다)도 같은 생각이다. 이스라엘에서 의무 군복무를 마친 그녀는 지난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일단 관공 비자로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뒤 미국인과 결혼하고 지금 영주권이 나오기를 기다린다. 그녀는 만약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면 자신의 어머니처럼 되기 싫어서라고 생각한다.

47세인 그녀 어머니는 지금도 월세 아파트에 살며 생계를 겨우 꾸려간다. 리노이는 “난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3면으로 계속)



시론

가정은, 가족은 다 그런 겁니다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퀘렌시아”는 스페인어로 ‘피난처, 안식처’입니다. 투우장 한쪽에는 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구역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소는 투우사와 혈전을 벌이다가 쓰러질 만큼 지쳤을 때 바로 이 피난처 구역인 ‘퀘렌시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숨을 몰아쉬며 힘껏 에너지를 모읍니다. 기운을 되찾아 계속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힘을 모을 수 있고 쉬를 가질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회복의 장소이자 ‘퀘렌시아’입니다. 곤충의 퀘렌시아는 나뭇잎의 뒷면이고, 땅 두더지의 퀘렌시아는 땅굴입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퀘렌시아가 필요합니다. 일에 지쳐 휴식이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 상처받아 억압이 무너질 때, 그때가 바로 나만의 ‘퀘렌시아’를 찾아가야 할 때입니다.

다. 여러분의 ‘퀘렌시아’는 어디입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퀘렌시아’는 바로 가정입니다. 아무런 부끄럼 없이 얘기도 하고, 핀잔도 받고, 인정받기도 하고, 쉬면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그런 감사와 기쁨을 주는 곳입니다. “가정은, 가족은 그런 겁니다.” 어느 한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동생이 중학교 2학년이었던 시절입니다. 집 근처에 학교가 있어 걸어 다녔던 저와는 달리 동생은 학교가 멀어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늘 엄마가 주시는 차비를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차비를 들고 집을 나선 동생이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꽤 씩 웃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어김없이 엄마는 동생에게 차비를 주었고, 그 모습을 본 저는 “엄마 차비 주지 마세요. 버스는 타지도 않아요. 우리 집 생활도 빠듯한데 거짓말 하는 녀석한테 왜 차비를 줘요!” 하며 동생이 알미워 불멘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먼 길을 걸어 다니는 동생이 안쓰러우셨는지 내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동생에게 차비를 쥐어주며 “오늘은 꼭 버스 타고 가거라”라고 당부하시며 보냈습니다. 그 차비가 뭐라고 전 엄마한테 왜 내 얘긴 듣지도 않냐며 툴툴대기 일쑤였습니다. 며칠 후, 학교 갔다 집에 돌아와 보니 온 집안에 맛있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주방으로 얼른 뛰어가 보니 놀랍게도 맛있는 불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집은 형편이 어려워 고기는커녕 끼니 챙겨 먹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서 더욱 기뻐했습니다. 저는 얼른 들어가 고기를 한 삼 썩게 찌서 입에 넣으며 미소 가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날은 무슨 날... 네 동생이 형이랑 엄마 아빠 기운 얻어 보인다고, 그 동안 모은 차비로 고기를 사왔구나” 그 먼 길을 가족이 오순도순 고기를 먹는 모습을 상상하며 기뻐할 진정 가족의 평화를 위해 걷고 또 걸었다고 했습니다. 성인이 되고 불고기라도 먹는 날이면, 그날 동생의 모습이 생각나 대견함에 눈시울이 붉어지곤 합니다. 가족은 그런 것 같습니다. 형이 못하면 동생이, 동생이 부족하면 형이, 자식에게 허물이 있으면 부모가, 부모님이 연세가 들면 자식이. 그렇게 서로 감싸며 평생 행복을 만들어 가는 것. 가족은 그런 것 같습니다.

“형제자매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몰라. 물론 많이 싸우겠지만, 하지만 항상 누군가 곁에 있잖아,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곁에 있잖아”(트레이 파커). “가정은, 가족은 그런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이겨낼 사랑의 그런 추억을 주는 곳입니다. 어머니날에 나온 어머니들의 반격. “꽃 한송이로 통틀 생각하지 말아라!” 그 안에는 그래도 내 아들들, 내 딸들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가슴에 전해집니다. 얼마전 서울여자대학교 사랑의 염서 공모전에서의 대상작입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걸인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가정은, 가족은 그런 겁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 인생의 크고 작은 깨달음이 있는 곳. 바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그 용서와 화해, 씩씩하고 그리고 사랑과 평화가 경험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정의 달을 지나며 다시 한번 삶에 채워봅니다. “가정은, 가족은 다 그런 겁니다.”

pastor.eun@gmail.com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서유럽 크리스천, 미국 “넌스” 와 비슷

(1면에서 계속)
서유럽 15개 국가에서는 평균적으로, 자신을 크리스천으로 여기는 사람 중 79%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국가별 응답률을 보면, 한 번에 진보/보수 성향을 볼 수 있다. 실제로, 포르투갈에서는 93%가, 그리고 가장 열린 나라로 분류되는 스웨덴에서는 59%로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명목상으로는” 크리스천들에게 전도/복음 증거는 중요하지 않다. 불과 8%의 크리스천들만이 사람들을 찾아가 성경의 하나님을 중

거하겠다고 응답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사순절이나 고난주간 동안 금식이나 십자가와 같은 종교적 상징을 하는 것도 이제는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다. 그리고 24%만이 십일조를 드리고 있는데, 포르투갈이 역시 43%로 제일 높고 영국이 18%로 가장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다.
퓨리서치는 또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물었다. 서유럽 크리스천들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이 영역에 대해서는 낮은 수치로 응답했다(전지-34%, 전능-26% 그리고 모두 사랑하심-47%). 결국 하나님

심판하시고 믿는 자와 교통하신다는 사실은 서유럽의 명목상의 크리스천에게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진리가 됐다.
한편 서유럽과 미국에서 “종교”와 “영성”은 사뭇 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사용되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SBNR(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이 대세로 흐르고 있어, 무려 미국인 중 27%가 이 물결에 몸을 맡기고 있다. 그러나 서유럽에서는 아직까지 11% 정도만이 같은 물결을 타고 있다. 오히려 서유럽에서는 반대 물결 즉 “RBNS(종교적이지만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15%에 육박하고 있다.

여기에 “BRAS(종교적이면서도 영적인)” 차원에서 서유럽 크리스천들은 24%로 미국(48%)의 반절 정도에 불과하다. 역으로, “NRNS(종교적이지도 않고 영적이지도 않은)” 영역에 서유럽인들은 53%나 속하고 있었다.
결론으로, 서유럽에서 크리스천은 명목상 크리스천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크리스천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동성결혼과 낙태에 대한 찬성 성향 증가가 이를 입증해준다. 그래서 CT는 미국의 넌스와 서유럽 명목상 크리스천들이 비슷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대중매체 아닌 소셜미디어...잘 알고 사용해야

(1면에서 계속)
요즘 주로 거창하고 있는 것들과 문화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반대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 친구들이 반대한 것보다 찬성하는 세상을 접하게 되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야 한다는 말이다.
진정성의 부재
지금 있는 교회가 흠 하나 없는 모습이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있는 교

회공동체가 있는 그대로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길 바란다. 멋지게 성형한 가짜가 되지 말자. 거짓은 훤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
광고의 연속
“여기로 오세요, 오세요! 와서 들어보고, 이거 골라 보세요! 구경 한번 해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SNS를 단지 이런 교회 광고판의 연장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안 된다. 물론, 정말 해야 하는 중요한

공지가 있을 수 있지만 공동체가 나누고 싶어 하는 콘텐츠의 주제가 생각보다 중요하다.

공동체 기념하기
가장 좋은 SNS의 ‘자산’은 바로 공동체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바로 사람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다가야 한다. 물론 사람들을 기념하며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온라인 친구들은 축하 받는 모습 보는 걸 즐긴다. 그런데 만약 교회 로고와 바로 그 옆에 찍혀 있다면 어떨까? 가족과 봉사자와 수행한 일의 목적과

활동을 생각해보자. 여기를 클릭해 보면 SNS를 잘 활용해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칠 현명한 전략을 볼 수 있다.

지금 있는 교회
지금 있는 교회는 어떤가? 지금까지 언급한 사항과 비슷한 점이 하나라도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공식적인 교회 SNS 게시물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것이다. 교회 개회자도 역시 SNS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브랜드 상품화가 필요하다.

이스라엘 젊은 세대들 “엑소더스” 가속화

(2면에서 계속)
“하지만 정부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삶을 설계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놔다. 젊은 세대가 이스라엘을 떠날 생각만 한다는 현실이 참으로 서글프다.
나도 언젠가는 조국에서 떳떳하게 자녀를 키우고 싶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다.”
라헬 오할과 남편 아미르 오할도 리노이와 똑같은 생각이다. 5년 전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살았다. 두 자녀를 두고 맞벌이를 했다(그녀는 은행직원이었고, 남편은 통신회사 고객지원부서에서 일했다). 월 소득은 두 사람이 합해 4000달러(세금징수 후)에 약간 못 미쳤다. 그 정도 수입으로는 네 식구가 먹고 살기에도 빠듯했다. 하지만 2013년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한 그들은 단 3년 만에 칩실 4개짜리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다.
지금 아미르 오할은 로스앤젤레스에서 건축 도급업체를 운영한다. 이스라엘에서 하고 싶어 했지만 어려웠던 일이다. 그는 이스라엘에선 소수의 막강한 가문이 건축업을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그의 수입은 이스라엘에 있을 때의 약 10배다. 아내가 일할 필요가 없는 것만 해도 그들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일이다. 그녀는 “이스라엘에선 나도 늘 일을

해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엄마 노릇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여기선 하루 종일 아이들과 같이 지낼 수 있다.”
물론 미국으로 이주한 모든 이스라엘인이 그들처럼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인이 미국으로 이주하려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경제적 기회가 훨씬 크다는 사실이다.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인을 위해 2007년 이스라엘-미국 위원회를 설립한 야담 밀스타인은 지금 그곳에 도착하는 이스라엘인의 생각이 1980년 자신이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생각과는 사뭇 다르다고 말했다. “당시 우리는 늘 집을 꾸린 상태에서 언제라도 귀국할 준비를 한 채 살았다. 하지만 요즘 미국에 도착하는 이스라엘인은 더 젊고 재능도 훨씬 많다. 그들은 서둘러 귀국할 생각이 없다.”
이민을 택하는 많은 이스라엘인이 꼽는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이 종교 국가가 아닌 유대인 민주국가라는 근본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엔 독실한 유대인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다. 이스라엘 사회의 모든 면에 그런 변화가 반영되고 있다. 정치만이 아니라 교육도 그렇다. 유대교 관련 과목이 교과 과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텔

아비브 출신으로 내년 남편과 함께 뉴욕으로 이주할 계획인 카르미트(30)는 “우리나라가 유대교 국가이기에 앞서 민주국가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독실한 유대교 신앙이 강조되면서 이스라엘은 더욱 보수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이다. 이스라엘을 떠나는 사람은 보통 좀 더 진보적이다. 이스라엘 중앙통계국에 따르면 현재 극단적인 초정통파 유대교 신자가 이스라엘 인구의 12%를 차지하지만 2065년이 되면 그 비율이 4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초정통파 유대교 신자 인구의 증가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들의 공립학교는 수학·과학·영어를 거의 가르치지 않는다. 벤-다비드 교수는 “이스라엘 어린이의 절반은 제3세계 교육을 받는다”고 말했다.
게다가 초정통파 유대교 신자 다수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소득이 적기 때문이다. 유대 근본주의를 믿는 그들을 ‘하레디’라고 부른다. 하레디는 세속적 가치를 거부하고 유대 율법과 전통을 고수한다. 남자에게 주어진 최고의 소명이 고대 유대교 경전과 율법 등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하레디 남성은 일도 하지 않는다. 아내가 벌어오는 소득과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아이들의 용돈에 철저히 의존해 살며 국가가 지원하는 유대교 율법 학습에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낸다. 그들은 보수적인

공동체 생활을 하며 남성은 검은 모자에 19세기 동유럽풍의 흰 셔츠, 검정 바지저고리 차림에 귀밑으로 돌돌 말린 양갈래 머리모양을 한다. 결혼한 여성은 목과 팔다리, 머리를 가리는 복장을 한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두 개의 나라로 쪼개졌다고 벤-다비드 교수는 말했다. “한쪽은 번쩍거리는 스타트업 이스라엘이고 다른 한쪽은 현대 경제에서 살아갈 도구가 없는 암울한 이스라엘이다.” 그 두 집단의 격차가 급속히 벌어진다. 게다가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은 끝이 보이지 않고 이란(테바노와 시리아의 이란 대리 세력 포함)과의 긴장도 계속 고조되는 상황이다.
벤-다비드 교수는 현 상태로는 국가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3 세계의 경제는 제1 세계의 군을 지탱할 수 없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인 이스라엘에 제1 세계의 군이 없으면 국가의 존립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해낼 수 있으며, 또 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제 미국 시민이 된 오할 부부도 벤-다비드 교수의 생각에 동의한다. 아미르 오할은 “난 부자가 될 생각이 없다”며 “진정코 우리가 귀국하기를 바라다면 정부가 시스템을 완전히 뜯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채플린 임상목회 (17)

두 환자의 임종



박동서 목사 (Texas Health Presbyterian 병원 채플린)

지난 메모리얼데이에는 유난히 임종 환자들의 사망이 많았습니다. 주말에 새로 산 동티모프 산 원두로 갈아 만든 모닝커피 한 잔을 내려서 막 맛보려는 순간에 중환자실 전담 간호사의 문자 메시지와 비상 콜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난 두 주간 가끔씩 방문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60대 후반의 비슷한 연령을 가진 두 환자가 나란히 열병실에서 동시에 임종을 앞둔 상황을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 분은 이미 4년여 간의 유방암 투병을 통해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분(♂)이었고, 다른 한 분(S)은 불과 세 달 전에 직장암 말기로 진단을 받고 본인과 가족들이 받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란 환자는 자신이 모태신앙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밝히면서 신학적 박식함을 자랑하곤 하였습니다. 난해한 성경구절을 예로 들면서 채플린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신학 서적을 많이 읽고 수많은 성경공부 코스를 수료했는지 우쭐해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간호사들에게 물어보면, 방문하는 친척이나 친구는커녕, 친 자식들마저도 전화연락조차 힘들다고 하소연을 할 정도였습니다. 본인 말로도 1-2년 이상 지속적으로 출석해본 교회가 없어서 교회 목사님이나 교우들의 심방도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환자가 임원한 방에는 그 흔한 위로 카드나 화환, 가족들이 가져온 사진 액자 하나도 없이 커튼이 닫혀진 어두컴컴한 병실에서 분노와 외로움으로 그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S란 환자는 부부가 모두 신앙에는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아오다가 말기암이란 진단을 받고서야 가까운 친구의 권유로 교회 출석을 하고 지난 부활주일에는 세례까지 받게 될 정도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믿음의 가족들과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출석하는 작은 교회의 목사님은 채플린이 방문할 때마다 거의 매번 병실에 와서 환자와 가족들을 위로하고 기도해 주고 있었습니다. 세 명의 손자 손녀는 교대로 와서 할머니를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환자는 처음에는 기적적인 치유만을 위해 신에게 의지해보려는 마음으로 교회도 가고 성경도 읽어보았지만, 이제는 영원한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믿음의 확신까지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죽음이 아직은 두렵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떠난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지역 장기 기증 센터의 담당직원이 방문을 하면서 채플린도 함께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기 기증은 절대로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하기에, 대기 상태로 장기 기증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수혜자와 가족들을 대신해서 모든 병원들은 지역 장기 기증 센터와 긴밀히 협조해서 임종을 앞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설득해서 기증 절차를 받게 됩니다. S 환자는 거의 모든 기증 가능한 장기와 피부까지 기증을 하고 싶어서는 그 유족들마저 사망 시 장기 기증을 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하며 기증 의사가 없음을 주장하던 J 환자마저도 그 날 아침 채플린의 방문을 받고 마지막 임종 기도를 받은 후 간호사를 불러 장기 기증을 원한다고 해서 스테프 모두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비록 일가친척 한 명도 없이 외롭게 세상을 하직했지만, 성령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지막 그 닫혔던 마음 문을 열게 하신 것 같았습니다.

(Texas Health Presbyterian 병원 채플린)

tdspark@gmail.com

SEED ICMS 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영성과
타문화권 사역의 전문성을 갖춘 선교사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가정을 위한 IN ICMS2018

(SEED Imitating Christ Missionary School)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교사학교

대 상 : 선교사 후보와 안식년 선교사 및 가정
장 소 : 캐나다 밴쿠버 ICTC 훈련원
12969 Crescent Rd., Surrey, BC V4P 1J8 Canada

일 자 : 2018년 6월 25일(월) - 8월 3일(금)
등록비 : 일인당 \$1,500/ 자녀일인당 \$750 (6세이상)

ICMS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선교적 삶의 시작입니다. ▶

SEED 선교회는 지역 교회를 섬기고 (Serving the Local Church) 선교사를 양육하여 (Equipping Missionary Workers)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Evangelizing Nations) 현지 지도자들을 양육(Disciplining National Workers) 하므로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완수하는 목적을 가진 북미주 자생 선교단체로 현재 37개국 140여가정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ICMS는 SEED선교사를 양성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교사학교" (Imitating Christ Missionary School)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영성과 타문화권 사역의 전문성을 갖춘 선교사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공동체 훈련 (Community Living)
선임 선교사 멘토링, 강의 및 workshop
예배와 말씀 묵상, 선교적 삶 나누기 (Missional life Journey)
GLOCAL Community Service

주요강의

- ◎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Imitating Christ Life (M 1)
그리스도의 성품
십자가와 복음
말씀과 기도
영적 리더십/성령
- ◎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역 Imitating Christ Ministries (M 2)
사도행전 선교적 이슈
영적전쟁 (Spiritual warfare)
타문화 의사전달
언어습득 훈련
자기 진단과 회복
- ◎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교 Imitating Christ Mission (M 3)
선교학 및 선교 동향
선교사 열전
사역철학
문화적 전략적 선교

자세한 안내는 국제본부 (www.seedtoday.org, seedintoffice@gmail.com, 미국 703-996-0717) 문의 바랍니다.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나그네 인생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나라 가수 최희준씨가 부른 이 철학적인 노랫말에 상이용사 강파였던 이전 석씨가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한얼산 기도원을 세우고 수많은 강도들을 회개시키는 한국교회에 영적인 지도자로 큰 업적을 세웠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젊은이들은 황당한 얘기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50이 넘어서 노년층에 접어들면 누구나 공감하는 인생의 정의이다.

인생이 나그네라는 사실은 틀림없다. 그런데 자기가 나그네인 것을 모르고 사는 나그네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천년만년 정착해서 안정되게 살 곳인 것처럼 애를 쓴다. 얼마 전에 한 6일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교우들의 사랑과 기도의 은혜로 건강하게 퇴원했다. 감사했다. 입원실은 환자들이 천년만년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화려한 것으로, 영구적인 것으로 값비싼 걸로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1회용품으로 충분한 것이다. 환자는 병원에 들어와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나그네인 것이다. “나

는 나그네다. 나는 떠나야 된다. 여기 오래 있을 곳이 못 된다” 그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고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데 나그네이면서 영원히 정착할 것처럼 사는 것, 참 측은하게 느껴진다.

반면에 인생이 나그네인 줄을 알고는 여기에만 또 너무 집착해서 정착의식을 포기하고 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살다가 여차피 내일이면 다 죽을 테니 방랑하고 방일하고 방탕생활에 빠지는 그런 현재의자들이 있다. 이것 또한 문제이다. 되는 대로 막 사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없다.

그런가 하면 정착지를 알고 있는 나그네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그네라는 이 개념을 순례자로 의미를 바꿔야 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순례자이다. 보시라! 우리는 그 여단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출생이라는 출입구로 이 순례의 길에 들어와 죽음이라는 출구로 빠져나가는 여단이 정착하게 되어있다. 우리 인생은 그 과정을 나그네라고 하는 것뿐이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나그네들이 흔히 하는 허탄한 자랑을 비판하고 있다. 사람들이 허탄한 자랑

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과거 자랑이 많다. 옛날에 어찌고저찌고..... 그러니 어찌란 얘기인가? 이런 과거 자랑은 빨리 잊어버릴수록 좋은데 과거에 내가 잘 살았고, 출세했고 뭐 어찌고저찌고..... 그런 이야기들로 자기 자랑을 하지만 사실이 과거의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사실 현재와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LA 있을 때 낚시를 좋아하는 옆에 감리교회 목사님이 계셨다 낚시를 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 사모님이 바구니를 받아 들면서 들여다보면 그게 조그만 피라미 몇 마리밖에 없으니까 그레 사모님이 “에게게” 그러신다. 그러면 목사님이 설명을 하신다. “사실은 기막히게 큰 물고기를 놓쳤는데 말야” 그러면서 그만 다 잡았다가 놓쳤다고 그러다. 그러면 사모님은 “그거 내가 수십 년 들은 얘기로. 그런 얘기 그만하쇼!” 그러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놓친 물고기는 다 커다란 월척이다. 그레 옛날 일은 다 광장했던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현재에 대한 자랑이 있다. 현재에 대해서 뭐 가진 것, 아는 것, 젊은 것, 지식, 뭐 자랑한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

에 종종 결혼주례를 한다. 그런데 그 두 사람 딱 세워 놓고 결혼주례할 때, 그 시간은 저도 행복하다. 아주 예쁜 신부, 신랑 보면서 저는 또 한편 철학적으로 생각을 한다. “지금 너희들에게 인생의 절정이다. 그런데 오늘이 그 고비다. 오늘까지 최고이지, 앞이 훤-하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다들 좋아서 못 견디지만 그건 아니다. 이 절정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 왜? 금방 지나가니까. Life is process 모든 것 다 금방 지나가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미래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다. 성경에도 보면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일 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이 인생이 무엇이며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더냐? 그랬다. 일년후?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다. 누가 일년후를 보장하겠는가? 그 허망한 사람들 많다. 황당한 것, 현실적 없는 미래를 내세우면서 그 걸 자랑하는 어리석음이 있다. 미래?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앞으로 전개될 미래에 대해 자랑하는..... 이상주의자요 허망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

실, 깊이 생각해야 한다. 물론 종착지가 있음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순례자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목사님, 정말 천당, 지옥이 있습니까? 그걸 좀 증명할 수 있나요?” 그 묻는 의도를 우리는 충분히 알만하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다. “만일 지네는 없다 하겠지만 나는 있다고 하는데, 만일에 있다면, 없다고 주장하던 지네는 어떻게 되겠나?” 묻는다. “있다면 나는 지옥 가야겠지요” “그럼 있다고 생각케 두는 게 훨씬 좋겠네. 안 그런가?” 그러다.

여러분! 앞에 정착지인 가나안 천국이 있다고 믿고 오늘을 사는 사람과 그런 것 없다고 생각해서 방랑객, 방랑객으로 사는 사람이 마지막 정착지에 도착할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인생허무, 인생무상 불립없는 진리이다. 그러나 그 뒤에 영생이 있음이 더 확실한 진리이다. 이 진리를 믿고 사는 지혜로운 순례자가 되기를 바란다.

revpetergang@hotmail.com

푸/른/초/장

이경종 목사
(필라델피아교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구원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그들이 지난 40년의 여정을 돌아보며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며 앞으로 가나안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와같이 오늘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함께 생각하며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 광야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2. 광야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3. 광야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본문의 내용을 일컬어서 ‘가데스바네아의 반역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보여주는 값진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백성들에게 충고하나 그들은 돌로 맞아 죽을 위기에까지 몰리게 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코 굴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 할지라도 옳은 일에 함께 순종하는 자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사막과 같습니다. 변화무상합니다. 분명히 보였지만 확실 했는데, 다음에 보면 보이지 않는 곳이 사막입니다. 믿었던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손에 쥐었던 재물도 없어지고 간강했던 몸도 약해집니다. 변하지 않는 곳 영원히 믿을 곳을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경험했고 그리고 잘 안다고 마음대로 잡다가는 상처받고 낭패만 당하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라’라고 하는데, 이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다바라’인데, 그 의미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즉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변화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거기에 반응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그간 40년을 총정리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다시 순종하는 믿음으로 광야에서 도우시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길을 우리 앞에 행하시며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피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logosnews@hotmail.com

“광야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신명기 1장 19-33절)

1. 광야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집지 못하면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말만 합니다. 원망 불평만 늘어놓게 됩니다. 본문 23절과 똑 같은 상황을 민수기 13:32절에서는 그 정당한 땅을 약평한 10명은 이미 생각만으로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데, 33절에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나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매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불신앙의 결과는 열등감과 좌절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매뚜기 같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너는 매뚜기 같다’ 라고 하면 오히려 화를 내야 할 판인데, 저들은 스스로 매뚜기 같다고 좌절하며 절망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낙심과 절망만 남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 같이 그 땅의 상황을 보고 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심령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일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우리를 언약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이기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잊지 말고 말씀을 붙잡음으로 현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해도 변함없는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는 신앙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나뭇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은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 버렸던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베푸신 놀라운 10가지 기적을 보았고 홍해를 가르고 마른땅 걷듯이 건너게 하였고, 뿐만 아니라 어찌 저녘에도 오늘 아침에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그 추운 광야에서 얼어 죽지 않도록 불기둥과 그 따듯한 햇살을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시원한 생수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

민생활 가운데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지를 말해주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도 40일간의 가나안을 돌아보고서 간담이 서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여 조금 지난 그들은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는 농기구 정도였을 테니까. 무엇으로 전쟁을 해야 하나? 군사도 없고 군대도 없는 자신들 신 줄 믿는 것입니다. 설령 현실에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그 일이 내 정력에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막는 것이 아닐까요? 일이 잘되면 기도 응답이 되어서 감사하고 일이 뜻대로 안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보면 현실의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생기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이 생깁니다. 성도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 25절에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지난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그곳을 정탐하기 위하여 각 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 12명을 보냈는데, 모두가 공통적으로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민수기 13장의 표현대로라면,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고 땅이요”라고 백백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그러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Fact 즉 현실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신1:27)라고 말합니

2. 광야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2. 광야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시 아곳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지난날 광야 4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그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까지는 대략 15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10명의 말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들 역시 현실적으로 보면,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하나님을 불순종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현실 앞에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h2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2> <h1 style="text-align: center;">기타지역 교회</h1>						
벤델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1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찬양) 오후 1:45 EW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8:00(월-토)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목회, 상담, 통역봉사: (토)오전 11:00, (일)오후 8:00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1부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원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00 영, 육, 영양예배: 오전 10:45 목회, 상담: 오전 10:45 (토)오전 11:00, (일)오후 8:00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저녁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앵커리지영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엘파소영문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30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월-토) 새벽기도: 오전 6:00(일)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저녁예배: 오후 8:00 토요침례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워싱턴아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침례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주 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 오후 8:00 수요침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1부예배: 오전 8시 주일2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3부예배: 오전 11시 영회중: 오전 11:00 영회중: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토)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영회중: 오전 11:00 영회중: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토)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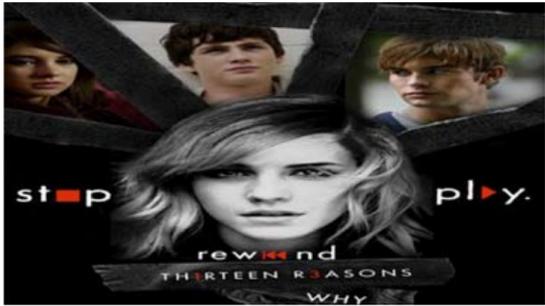
십대들을 자살로 이끄는 "13 Reasons Why" Netflix TV시리즈의 위험성

"너는 이것을 알려 말세에 고통 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딤후 3:1-5).

캘리포니아의 15세 벨라(Bella Herndon)와 프리실라(Priscilla Chiu)도 시즌1을 보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모습으로 자살했습니다. 23살의 페루 사람 프랑코(Franco Alonso Lazo Medrano)도 시즌1을 보고 모방자살을 한 후 자기가 자살한 이유를 녹음

합니다. "13 Reasons Why"의 내용의 심각성 이 영화는 십대 소녀인 한나 베이커(Hannah Baker)가 자살하면서 그녀가 남긴 13개의 카세트 테이프가 주위에 퍼져나가며 전개되는 혐악하고 위험한 내용들입니다.

격려하는 홍보동영상까지 올렸습니다. "13 Reasons Why" 시리즈는 현재 Netflix의 가장 높은 수익을 올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시즌 2에는 시즌 1 때보다 더욱 불필요하고 적나라한 섹스 장면과 여러 강간, 성폭행, 동성애 관계, 잔인한 총기 폭력 등등 십대들뿐만 아니라 어느 누가 봐도 너무나도 안 좋은 악한 장면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미 방학을 한 어린 십대들이 집에서 혼자 시리즈 2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워오는 것일까요? 악한 어둠의 세력이 어디까지 갈까요? Netflix의 드라마 시리즈인 "13 Reasons Why(자살 13가지의 이유)"의 내용을 보면 물어볼 수밖에 없는 정당한 질문입니다. 오로지 더 많은 수익을 위해 다음세대의 목숨까지도 우습게 여기는 주류 미디어의 거인중 하나인 Netflix는 어디까지 가야 멈출까요?

"13 Reasons Why" 영화시리즈의 영향력 - 늘어나는 모방자살!! 앨라배마 주에 있는 알라바스터(Alabaster) 도시에 살고 있는 애나(Anna Bright) 가족은 얼마 전 믿을 수 없는 참사를 당했습니다. 14세밖에 안된 너무나도 이쁘고 활발했던 딸, 애나가 Netflix에서 방영하는 "13 Reasons Why - 내가 자살한 13가지 이유" 시즌 1 전체를 다 보고 그 영화에서 본 대로 모방자살을 했기 때문입니다.

로 남겼습니다. 이들의 자살 내용을 들어보면 너무 서늘하고 또한 가슴이 저리도록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몇 명의 아이들이 이 영화를 따라 자살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아직까지 미디어에 나오지 않는 자살 시도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자살을 했으나 미디어에 나오지 않는 자살이 몇 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니다. 그녀가 남긴 13개의 테이프에는 자신이 자살한 이유가 13명의 사람들 때문이라고 그들을 비난하며 그녀가 죽은 후에 그 13명에게 어떻게 잔인하게 복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시즌에는 매우 인격 모독적이며 편협한 욕, 언어들 나오고, 고등학생들의 과도한 마약과 술사용이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동성애 행위를 자극적으로 미화시키고, 결고는 친구들과 집단 따돌림 그리고 과격 폭력장면들, 십대들을 상대로 한 포르노 수준의 강간과 문란한 성관계를 묘사한 것이 나오고, 3분짜이나 십대 소녀가 자살하는 모습을 너무 자세히 생생하고 잔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명운동 참여 및 공유 절실!

이 드라마를 내리라고 서명운동을 시작한 AFA(American Family Association)라는 기독교 가족 법률단체의 Ed Vitagliano는 이 시리즈에 대해 말하기를 "이 영화는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아이들을 목표삼아, 그들에게 악령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다. 지옥에서 온 타락의 영, 악령의 증오와 폭력 속으로 분별력 부족한 십대들을 초청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녀들을 잃은 부모들은 여기에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AFA는 Netflix에 연락하여 "13 Reasons Why"의 위험성을 논의 하라고 미팅을 요청했고 시즌 1과 2를 취소하라고 지금까지 6만 명의 서명을 모아 보냈지만 Netflix는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십대 어린이들을 자살로 이끌고 있는 "13 Reasons Why" Season 1&2를 당장에 취소하라는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시고 공유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운동은 tvnext.org로 가시면 서명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5월 18일부터 상영되고 있는 영화 "Show Dogs"도 보지 마세요. LifeSiteNews와 NCOSE(National Center on Sexual Exploitation)를 포함한 가족의 가치를 존중하는 단체들은 "Show Dog" 만화영화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해한 생식기 접촉을 정상인 것으로 보이게 하고 성적 학대를 아이들에게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그녀의 죽음을 처음 본 아버지는 그녀가 참혹하게 죽은 모습과 집안에 무섭게 벌어진 일들을 보고 살해당한 줄 알았으나, 전화를 받고 뛰어온 경찰이 모든 것을 검사하고 부모에게 알려주기를 그 딸은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 한창 유행하고 있던 "13 Reasons Why"라는 Netflix의 시즌 1 시리즈를 따라 집안의 모든 것을 셋업(set up)하고 모방한 자살을 한 것이라는, 부모들에게는 날벼락과 같은 사실을 전해했습니다. 딸의 전화기에서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에는 애나가 어떻게 그런 모습의 자살을 모방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단서들이 수두룩했습니다.

"13 Reasons Why" 작가와 평가 첫 번째 시즌은 Jay Asher라는 작가가 쓴 청소년 소설에 근거하는데, 이 영화/드라마를 만든 제작자들과 Netflix 시리즈 팀은 이 영화를 TV-MA(TV방송을 학부모들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하는 기준)로 평가하기를 "성숙한 관객만을 위한 쇼"라고까지 하면서도 관중은 십대들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이 이미 문제가 됐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 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제 남편이 교회의 장로님인데 현재 양로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매일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목사님께 기도도 많이 받고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했지만 남편의 상황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나빠지면서 현재는 사경을 헤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실비치에서 Park 권사

A: 오늘의 질문에 대해 먼저 크리스챤티투데이(Christianity Today)의 편집인인 유명 칼럼니스트인 "필립 안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인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필립 안시라는 사람이 어느 해 겨울 아주 추운 밤 시카고에서 매서운 바람이 불고 진눈개비가 흩날리고 도로는 얼음으로 미끄러운 그날 밤에 약속된 모임에 가기 위해 차를 몰고 인적이 드문 곳을 통과하다가 차가 그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향한 믿음 붙잡아야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차의 후드를 열고 허리를 굽혀 엔진을 점검하였는데 바람에 날리는 진눈개비가 가지처럼 목과 얼굴을 아프게 했고 점점 어둠이 깔려가고 있어 겁이 나고 두려웠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차의 시동이 걸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시동은 걸리지 않았고 여기저기 튜브와 케이블을 만지며 씨름해 보았지만 모두가 헛수고였습니다. 그는 결국 한 시간 동안이나 허름한 식당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토잉 트럭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때 그는 하나님이 과연 나의 곤경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시동이 걸리도록 기도하는 일은 아주 사소하게 보이고 이기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날 밤 그에게는 매우 큰일이었습니다. 어쩌든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것은 사소한 실망감을 주었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쌓여 가면 의심이 생기고 나의 믿음이 약화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크리스챤이라도 할지라도 기도하고 희망했던 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삶에서 고난이 계속되면 그 사람의 잠재의식 중에 2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가 실망이요 둘째는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의 감정이 앙갚음이 납니다.

하나님께 대해 실망할 이유가 있는 사람을 찾았다면 그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요셉일 것입니다. 그는 놀라운 꿈을 꾸어 형들에게 이야기 했다가 오히려 미움만 받고 나중에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살고생하다가 가정총무로 발탁이 되고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유혹을 물리쳤지만 결과는 애굽의 토굴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꿈 해몽을 잘해서 술 맡은 관원장의 생명을 살려주었지만 그는 복직한 뒤에 요셉을 2년 동안이나 잊었습니다. 한마디로 고난의 연속이요 실망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여호와를 앙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나 슬픔, 병, 재난, 죽음, 고난 등의 문제들 앞에서 혹 어떤 때는 불공평하게 취급당하는 사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인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너무 기가 막히고 힘듭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대답은 "어떻게는 어떻게 해,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라고 저는 대답합니다.

히브리서 10:38,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Ph.D. in Leadership

사역 리더십 박사학위 과정

MBA.

이수학점: 48 Credit Hours

Global Leadership 글로벌 리더십 / Global Business 글로벌 비즈니스 Asset/ Investment Management, 투자, 부동산투자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공공정책과 행정학 입학자격: 대학졸업자 및 동등학력자

Doctor of Leadership

이수학점: 48 Credit Hours

Organizational/ Ministry Leadership 조직, 사역 리더십 Brain/ Gifted Education Leadership 두뇌개발, 영재교육 리더십 Entrepreneurial Leadership 경영 리더십 / Political Leadership 정치 리더십 International Aviation Leadership 국제 항공 리더십 입학자격: 대학,대학원 석사이상자 및 동등자격자 전형방법: 서류심사, 이수 에세이, 일반상식, 면접

Ph.D. in Leadership

이수학점: 60 Credit Hours

Organizational / Ministry Leadership 조직, 사역 리더십 Brain/ Gifted Education Leadership 두뇌개발, 영재 교육 리더십 Entrepreneurial Leadership 경영 리더십 / Political Leadership 정치 리더십 International Aviation Leadership 국제 항공 리더십 입학자격: 대학,대학원 석사이상자 및 동등자격자 전형방법: 서류심사, 이수 에세이, 일반상식, 영어시험, 면접

Certificate Programs

1년 과정

- 1. Ministry Leadership- 전도사, 신학생, 권사, 장로, 부목사 등. 2. Pastoral Leadership- 현, 담임목사

위 과정은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과 Midwest University 에서 수료증 수여함 목회자 리더십 과정은 최고의 교수진을 통해 각지역별 특강과 프로젝트에 참여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자간 네트워크, 사역협력과 친선 및 미래사역 개발, 선교협력을 하게되는 과정입니다. *목회 리더십에 대한 강의와 연구, 모델 사역현장 답사, 글로벌 리더십 컨퍼런스를 통한 폭넓은 사역에 도전.

학위 취득방법 & 인증기관

학위,학점 취득방법

- 1) 미국 유학을 희망 하는 학생은 SEVIS 1-20 혹은 J-1 Visa 2) 직장, 사역을 떠나지 않고 어디서든지 세미나, 소집특강, 온라인으로 학점취득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M.Div 졸업자는 미국 재단법인 IEA 로 부터 목사안수 가능 Midwest University 는 미 국무부가 지정한 J-1, J-2 Visa Sponsor

인증기관

미국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www.ope.ed.gov/accreditation 미국 대학 학력인증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대학코드 (USDE) OPE ID; 03528300

문의 :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홈페이지 www.midwest.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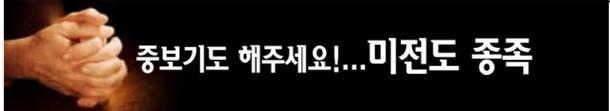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 730-4750 / Fax: (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탈리쉬(TALYSH)



거의 10만명에 달하는 탈리쉬족이 이란의 북서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또 3만명 정도는 아제르바이잔의 남동부에 있다. 그들은 카스피해를 따라 높고 산립이 우거진 탈리쉬 산맥에서부터 아열대의 해안지방에 이르기까지 철예하게 대조되는 땅에 살고 있다. 그들은 자신을 "탈루손(Talushon)"이라고 하며, 탈리쉬어라고 하는 인도-이란계 언어를 구사한다. 탈리쉬족은 모두 자기들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대부분은 아제르바이잔어도 유창하며 러시아어나 파시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일부 있다. 탈리쉬인들은 수천 년 동안 카스

피해의 남서부 지역에서 살았다. 그들은 중세에 터키의 영향을 받았으며, 1600년대에 자신들의 독립 군주국(khanate)을 세웠다. 1800년대 초기에 현재 아제르바이잔의 탈리쉬인들은 러시아 지배하에 들어갔으며, 아제르바이잔이 소련에서 벗어난 1991년까지 계속됐다. 오늘날 탈리쉬인들은 다른 중앙아시아 민족들이 과거의 이슬람 전통을 따라야 할지 현재의 서양 문화와 기술을 따라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과 같은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삶의 모습

5개의 탈리쉬 종족의 생활양식은 그들이 처한 환경의 차이 때문에 상당히 다양하다. 하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상관없이, 대다수 탈리쉬인들은 농부들이다. 어

떤 지역에서는 쌀이 주요 작물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밀과 보리를 재배한다. 카스피해 근처 저지대에서는 차와 시트러스 과일을 재배한다. 저지대에 사는 많은 탈리쉬인들이 마늘, 양파, 호박, 멜론, 콩, 포도 등의 신선한 작물을 경작한다.

탈리쉬인 전부가 농부인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숙련된 장인이 됐다. 그들의 주요 공예는 비단, 양탄자, 모피 생산 같은 것이다. 양철로 작업을 하거나 구두를 만든다든지 보석 세공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탈리쉬인들은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의 가옥에서 산다. 산악지대의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자르지 않은 돌로 만든 나지막한 지붕의 가옥에서 산다. 해안지역의 사람들은 갈대나 사초(줄기가 딱딱한 풀과 같은 식물)로 된 지붕이 있는 진흙집에서 산다. 집에는 대개 천정까지 이르는 높은 문이 있는데, 요리하는 데서 생기는 연기가 나갈 구멍이 지붕에는 없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탈리쉬의 가옥에는 가구가 없다. 하지만 서양 스타일의 가구를 갖

는 집들이 늘어가고 있다.

탈리쉬의 여자들은 한때는 얼굴에 베일을 쓰고 몸 전체를 완전히 덮은 길고 험렁한 옷으로 된 전통적인 무슬림 의상을 입었다. 오늘날 많은 탈리쉬 여성들은 특히,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전통의상을 버리고 서양 스타일의 옷을 입는다.

이슬람의 율법은 남자가 4명의 아내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탈리쉬 남자에게는 단 1명의 아내가 있다. 소년들은 대개 15-20세에 결혼하는 한편, 소녀들은 대개 12-16세에 시집간다. 신랑의 가족은 "케빈(kebin)"이라는 신부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돈과 카페트나 가정용품 등의 물품이 된다. 케빈을 지불하지 않으면 젊은 남자가 때로 결혼적령이 된 여자를 납치해서 아내로 삼는다.

신앙

탈리쉬인들은 거의 100% 무슬림이며, 주로 시아파에 속한다. 그들은 예수를 예언자이며, 교사, 선한 사람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슬람은

성공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후에 선행과 코란에 대한 지식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믿는다. 다른 무슬림과 같이 그들은 이슬람의 5개 의무를 준수하는데, 알라가 유일신이고 모하메드가 그의 예언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것, 충분히 자선하는 것, 금식, 메카로 순례여행을 하는 것 등이다.

탈리쉬인들이 무슬림이라고 고백하고는 있지만 이슬람 이전 종교의 몇몇 흔적들이 남아 있다. 예를 들면, 그들은 나무와 숲을 커다란 경외감을 가지며 나무는 가장 신스러운 장소 중에 속한다. 그들은 또한 선과 악의 영의 존재를 믿는데, 가장 위험한 영은 "알라잔(Alazhan)"이라는 "붉은 여인"이다. 알라잔은 아기가 태어날 때와 유아기 때에 여인들을 공격한다고 믿어지고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아제르바이잔은 구소련의 3개의 트랜스코카서스 공화국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경제문제에 직면해있다. 높은 실업률과 오랜 전통의 부정

부패의 부담을 안고 있으며 양자 모두 경제성장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란은 1979년 혁명 이후로 "이슬람의 행위규범"을 엄격히 강화했다. 이 규범은 남자가 지도자이며 여자는 아이들과 집안일을 돌보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기독교인에 대한 정부의 박해는 혁명 이후로 심각하게 증가했다.

탈리쉬인들은 오랜 동안 이슬람에 구속됐다. 오늘날 이란과 아제르바이잔에 살고 있는 13만명의 탈리쉬인들 가운데는 30명 미만의 성도들이 있다. 그들 대부분은 복음의 분명한 소식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 이 소중한 민족에게는 그들의 언어로 된 기독교 자료가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독교방송, 성경, 문서 자료가 없고 선교단체는 탈리쉬족 중 어느 종족에 대해서도 목표를 두고 있지 않다. 복음의 빛을 들고 이 종족들에게 효과적으로 침투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일할 사역자와 복음적인 도구가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국인 10명 중 9명 "여름성경학교 좋아요"

미국 내 기독교 인구의 사회적 영향력이 동반 감소하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여름방학을 활용한, '여름성경학교'(VBS·Vacation Bible School)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은 여전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리서치가 최근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은 "유년시절 여름방학 때 다녀온 성경학교가 긍정적 추억으로 남아 있다"고 답했다. 또 3명 중 2명은 "올해도 자녀를 여름성경학교에 보낼 것"이라고 응답했다.

미국 기독교 성장의 중심축이 됐던 여름성경학교는 1890년대 시작됐다. 지금도 미국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스코트 맥도널드 라이프웨이리서치 대표는 "매년 여름마다 미 전국 교회에서 수천 개의 성경학교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미국인들은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언급한다"고 말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유년시절 여름성경학교에 참가했던 응답자 대다수가 '성경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88%) '영적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89%)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경학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다음세대 성경학교 교육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19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자 95%는 "성경학교가 내 아이에게 긍정적 영향을 줬고, 영적 성장에도 도움을 줬다"고 답했다.

또 미국인 10명 중 6명은 유년시절 여름성경학교에 1회 이상 참가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2%는 '매년 여름마다 참가했다'고 응답했고 '2회 이상 참가했다'는 응답자도 32%를 차지했다.

여름성경학교 참가 경험이 없는 미국 성인들도 교회의 성경학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다. 성경학교 무경험자 가운데 61%는 "여름성경학교가 대체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 52%는 "성경학교 프로그램이 자녀의 정신적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제나 마그루더 라이프웨이 어린이·청소년 담당 책임자는 "설문조사를 통해 성경학교가 여전히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여름성경학교가 더 많은 곳에서 열릴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7-10일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은 ±3%다.

당신도 혹시 '디지털 바리새인'?

"많은 기독교인들이 '디지털 바리새인'이 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영국 기독교론 '프리미어크리스천티비'의 정치 에디터인 마틴 이튼은 최근 이 같은 제목의 기고문을 발표했다. 그가 명명한 디지털 바리새인은 주로 온라인과 SNS 등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편협한 성경해석 등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기독교인을 지칭한다. 율법과 형식 등에 집착한 성경 속 바리새인의 현대판 버전이라 할 만하다. 예수는 당시 바리새인들을 향해 위선자라고 비판했다.

이튼이 지적한 디지털 바리새인의 사례는 이렇다. 영국 성공회는 지난해 말 여성인 사라 멀러리 부주교를 런던 주교로 임명했다. 영국 성공회 사상 여성이 이 직책을 맡게 된 건 처음이다. 기독교 네티즌들 사이

에서 비판이 쇄도했다.

그들 중에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딤후 2:12)라는 성경구절을 내세우면서 멀러리에 대해 적대감을 표출했다. 하지만 이튼은 "성경을 보면 예수가 사역하는 동안 여성들이 다양한 역할(눅8:1-3)을 감당할 사실이 나타난다"며 "일부 기독교인은 이러한 역할을 인식하는 데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최근 아일랜드는 국민투표에서 낙태를 합법화했다. 이와 관련, 기독교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양극단적 발언에 대해서도 이튼은 안타까워했다. 그는 "(낙태 문제는) 어머니의 행복뿐만 아니라 낙태된 (태아의) 삶에 대한 전통적인 기독교 관점도 중요하다"면서 "토론을 한다면 결코 어느 한쪽의 극단적 반응을 정당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 바리새인의 모습은 한국교회 안팎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동성애 및 낙태 논란이 대표적이다. 동성애와 낙태 모두 성경적 관점에서 죄에 속한다. 하지만 이 사안을 다루는 기독교인 중에는 온라인의 익명성에 기댄 채 편 가르기와 분열, 심지어 싸움을 야기하는 이들도 종종 등장한다. 그들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특정 성경구절을 들이밀면서 공격하고 있는데, 이런 구절도 함께 들여다볼 만하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골4:6)

이튼은 '디지털 바리새인이 되지 않는 밤'을 제시하면서 비슷한 조언을 했다. 그는 "기독교인들은 친절해야 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면서 "상대방과 다른 견해가 있다면 우아함과 사랑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독교인으로서 발언하고 싶다면 오만함과 편협함 없이 예수의 가르침, 즉 은혜와 사랑을 품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스위스 과학자, 진화론 뒤집는 연구결과 발표

'현존하는 생물종의 90%는 거의 같은 시기에 나타났으며, 생물종은 명확하게 유전적 경계가 나뉘어져 서로 다른 두 종 사이에 중간 종이 없다.'



다윈의 '진화론'을 뒤엎을 수 있는 이 같은 연구 결과가 지난달 30일 인류 진화학 학술전문지인 '저널 오브 휴먼 에볼루션(Journal of human evolution)'에 실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논문 저자는 마크 스토클(미국 뉴욕 록펠러대) 데이비드 세일러(스위스 바젤대) 교수다.

스톡을 교수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생물 10만종의 'DNA 바코드'를 분석한 결과 인간을 포함한 생물종의 90%가 10만-20만년 전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에 인간은 약 76억명, 참새는 5억 마리, 도요새는 10만 마리가 살고 있지만 유전자는 거의 같다"며 "매우 의외의 결과였기 때문에 연구팀 자체적으로 엄격한 검증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하주현(경희대 의대) 교수는 4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진화론자들은 그동안 200만-300만년 전 지구상에 인류가 출현했고 다른 생물종은 그보다 훨씬 전에 나타났다고 주장해 왔다"며 "연구의 분석 도구와 과정을 더 살펴봐야겠지만 모든 생명체가 거의 같은 시기에 출현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면 진화론의 맹점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몇 세대에 걸친 중립 돌연변이가 생물 개체의 생존 기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하 교수는 "진화론자들은 중립 돌연변이의 유사성 정도에 따라 생물종의 출현 시기를 추정해 왔는데 연구팀이 중립 유전자 변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간 종이 없다'는 연구 결과도 주목받고 있다. '중

간 종'이란 1861년 독일에서 시조새 화석이 발견된 이후 80여년간 '진화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발견인가'를 두고 논란이 됐던 개념이다.

이은일(고려대 의대) 교수는 "수년 전 지느러미로 보행할 수 있는 물고기가 발견되면서 양서류가 어류의 진화된 생물종일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된 적은 있지만 역사상 '중간 종'을 증명할 수 있는 화석은 발견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진화 과정 없이 완벽한 형태의 생명체가 출현한 것은 이미 완전히 다른 형태의 생명체가 창조돼 차후에 발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유전적 변화는 생명체의 근본적인 설계도가 바뀌는 게 아니라 다양성과 돌연변이가 생기는 과정"이라며 "워드 프로그램이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될 수는 있지만 아무리 업그레이드를 해도 워드 프로그램이 발표·회계 프로그램으로 변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가 진화론을 전면 부정하는 결과를 도출한 것은 아닌 만큼 절대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창조질서를 이해하는 수단으로 삼으라는 조언도 나온다. 이 교수는 "과학은 연구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를 발견해가는 과정"이라며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다양한 해석을 통해 풍부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과학자들의 주장을 절대적인 것으로 바라보지보다는 다양한 해석 중 하나로 여기고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창조과학회장 한윤봉(전북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이번 연구는 우연히 만들어진 생명체가 우연적으로 종과 종의 경계를 넘어 진화한다는 것이 비과학적인 주장을 재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며 "과학적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해당 논문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분석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 "나쁜 합의 안돼..." 트럼프에 가이드라인 제시

미국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쁜 합의(bad deal)'는 안 된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척 슈머 원내대표와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부 민주당 간사가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대북 합의에 포함해야 할 원칙을 제시했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북핵·생화학 무기 전면적 폐기, 군사적 목적의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농축 시설 해체, 핵실험장 및 개발·농축 시설 등 핵 인프라 영구 해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전면 중단 및 해체, 부정행위 차단 및 탐지를 위한 감시체제 구축 등을 요구했다.

특히 슈머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해체 약속을 검증할 수 있게 이행하는 것 외에 어떠한 형태로든 제재 완화를 허락하는 합의는 나쁜 합의"라면서 "제재 완화 시점은 비핵화 약속이 아닌 실제 행동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과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맺은 이란 핵협정보다 높은 기준치가 적용된 것에 대해 "북한은 이란과 달리 이미 완성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수준을 맞추기는 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면 미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상원에선 제재 의원 100명 중 6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 공화당이 51석인 점을 감안할 때 제재 완화를 위해 민주당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기준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구촌어린이 절반 이상 위기에

전 세계 어린이의 절반 이상이 각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2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를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나라로 평가됐

다.

영국에 본부를 둔 세계 최대 아동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세계 아동의 날(6월 1일)을 앞두고 30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2018 세계 아동기(Childhood) 보고서'를 발표했다.



단체는 175개 나라를 대상으로 열악한 위생과 영양실조, 교육 배제, 아동 노동 및 결혼, 조기 임신, 극심한 폭력 등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 시절을 빼앗는 요소들을 평가했다.

아동 관련 환경이 최고 수준인 나라로는 싱가포르와 슬로베니아가 공동 1위를 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공동 3위, 핀란드가 5위, 아일랜드와 네덜란드가 공동 6위로 뒤를 이었다. 한국은 아이슬란드 이탈리아와 함께 공동 8위를 했다.

전체 조사 대상 중 95개국은 안전과 건강을 비롯한 아동 관련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상황이 나빠진 나라는 40곳이다. 보고서는 "전 세계 어린이의 절반이 넘는 12억명 이상이 빈곤과 분쟁, 여아에 대한 차별로 어린 시절을 일찍 마감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세 가지 문제에 모두 직면한 어린이는 1억5300만명 정도다.

아이들에게 가장 위험하다고 평가된 나라는 사하라 사막 중남부에 있는 니제르다. 이어 말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남수단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기니 시에라리온 콩고민주공화국 순으로 나타났다. 모두 아프리카 국가다. 보고서는 "이들 나라의 아이들은 어린 시절과 미래 잠재력을 빼앗길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햄버거 외교' 평양서도 통할까...

미국식 패스트푸드와 자본주의의 대명사 맥도날드가 평양에 상륙할 수 있을까. 북한의 공식 발표는 없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식 햄버거 체인의 영업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미 NBC방송은 최근 미 중앙정보국(CIA)의 보고서 인용해 김 위원장이 미국 햄버거 체인의 북한 내 영업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2일 북한이 한때 맥도날드의 북한 진출 승인을 검토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맥도날드의 평양 진출은 단순히 이 회사의 해외 매장이 하나 더 늘어나는 차원의 의미를 넘어선다. 맥도날드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120개국에서 3만 7241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사람들의 관심은 맥도날드가 북한의 개방을 자극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지에 쏠려 있다. 맥도날드 햄버거가 평양 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면 미국 문화에 대한 호감이 생기면서 반미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맥도날드 효과는 과거 공산국가들이 자본주의 요소를 받아들이고 문호를 개방하던 초기에 어김없이 위력을 발휘했다. 1990년대에 이 브랜드가 소련과 중국에 진출했을 때는 그 자체가 화제였다. 모스크바에서 맥도날드 매장이 처음 문을 열자 모스크바 시민들은 햄버거 하나를 사 먹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렸다. 중국의 민속학자 웨인샹은 "당시 베이징 시민들에게 맥도날드는 미국적인 것과 현대화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했다.

공산권 몰락과 맥도날드의 해외 진출이 거의 같은 시기에 확산되자 뉴욕타임스의 유명 칼럼니스트 토머 프리드먼은 '맥도날드가 영업 중인 국가 간에는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등 맥도날드 영업 국가 간에도 전쟁이 발발하는 사례가 발생해 프리드먼의 이론이 안 맞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맥도날드 햄버거의 확산과 전쟁 위험 감소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분명 흥미로운 관찰이다.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두 햄버거를 매우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52. 황사용(1881-1964)

황사용은 1881년 4월 27일 평안북도 의주의 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10세에 부모를 잃었고, 부모를 잃은 지 8년 후인 1899년에 기독교인이 된다.

1905년 2월 24세였던 그는 상항으로 유학을 왔다. 상항에서 그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설립한 공립협회에 가입하여 민족운동에 뛰어들었고, 1907년 나성 지방회 부회장이 되어 이곳에서 야학을 열고 교육활동을 펼쳤다. 이후 공립협회 대표가 되어 1909년 2월 하와이 한인합성협회와 함께 국민회를 출범시키는 데 공헌했다.



황사용

었다. 이후 300여 명의 교인으로 성장하였으나 교역자가 없어 안타깝게도 교회 문을 닫고 말았다.

삭도 지방 순행전도사

1910년 1월 상항으로 온 황사용은 상항한인감리교회 열위스 청년회 회장으로 선임된다. 그런데 위상전에서 모인 미국 남감리교 여성교회 총회는 태평양 연안의 한국인 선교를 위해 상항한인감리교회가 발행하던 '대도'의 회계로 일하고 있던 황사용을 삭도(세크라멘토) 지방 순행전도사로 택정하였다. 그는 1912년 4월부터 사역하였는데 북가주 전 지역을 통틀어 한인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 발품으로 복음을 전하는 열심을 발휘했다.

1913년 8월에 황사용은 세 쌍의 삭도 교인의 합동결혼식을 상항한인감리교회 예배당에서 주례했다.

로스리 스토어를 운영하던 문헌철의 집에서 시작하였고, 1915년에는 마운틴뷰교회가 소개된다.

1915년 당시 삭도교회에는 28명, 스타튼교회에는 8명, 오클랜드교회에는 8명 그리고 마운틴뷰교회에는 6명이 주일예배에 출석했다. 1916년에는 맨티카와 매리스 발까지 그의 선교지역이 확장되었다. 그런데 마운틴뷰교회는 문을 닫았지만 매리빌과 맨티카에서 예배를 시작했다. 맨티카교회는 스타튼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 삭도교회는 평균 35명이, 스타튼교회와 맨티카교회가 모인 연합예배에는 평균 16명이, 오클랜드교회에는 평균 8명이 그리고 매리빌교회에는 평균 7명이 출석했다.

호놀룰루 제일한인감리교회

황사용은 1917년 텍사스 주 달라스에 있는 남감리교대학교에 입



메리다 교회 건물

년에 본 교회 교인수는 70명이였다. 그런데 그가 사임하던 1922년에는 118명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상승의 폭은 주일학교 학생 수에서도 나타났다. 1920년에 75명이었는데 1922년에는 120명이였고, 주일학교 교사 수는 1920년에 7명이었는데 1922년에는 10명으로 3명이 늘었다. 그가 본 교회에 부임한 다음 해인 1921년에는 11명이 세례를 받았고, 그가 사임하던 1922년에는 4명에게 세례를 베풀어 그의 목회 중 총 15명에게 세례를 집례했다.

황사용의 주요 사역 중 교회당 신축이 있다. 1921년 9월 포트 스트리트 1520번지의 대지를 구입한 후 대지 구입비와 건축비 등 총 2만5천 달러로 교회당을 건축하고 1922년 1월 10일에 헌당 예배를 드렸다. 신축건물은 본 교회의 여섯 번째의 예배당이었다.

상항 순회설교가

1923년에 황사용은 결혼하기 위하여 한국으로 나간다. 그의 후임으로 현 순목사가 호놀룰루 제일한인감리교회 담임목사를 이었다. 부인과 함께 돌아온 그는 와이알루아에 머물면서 와히아와와 올리브 스트리트 감리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가후구 등 지방교회도 돌보았다.

이후 상항으로 이주한 황사용은 자영업업을 하면서 1930년까지 한

본 교회에서 목회했다. 부임한 지 1년 후인 1931년에는 출석 교인수가 90명이었는데 그가 사임하던 1939년에는 125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1939년 7월 가주 중앙선교부 제 1회 연회록에 보고한 바로는 재적 인원 125명 가운데 평균 출석 인원이 75명이었고, 주일학교 학생 수는 52명이었다.

1939년 당시 본 교회는 국민회관 인근 웨스트 제퍼슨 불루바드 1016번지에 위치한 아프리카인 어메리칸의 제칠일안식일교회를 주 2불에 빌려 주일예배만 보았다. 한 달 중 3주는 한국어로 예배를 드렸고, 넷째 주는 2세를 위하여 영어로 예배를 인도했다. 저녁 예배나 청년회는 따로 모이지 않았으나, 매주 가정에서 12명에서 15명이 기도회에 모였다. 나성 개신교 연합회에서 후원하는 할리우드 K.F.W.B 방송순서에도 출연하였던 것으로 보아 20여 명으로 조직된 성가대가 비교적 활발했음을 알게 된다.

황사용은 세탁소를 운영해야만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 재정이 열악했다. 그런데도 1931년 이후 1939년까지 황사용은 나성뿐만 아니라 남가주 일대에 흩어져 있는 한인 노동자를 위하여 순회 목사로도 활동했다.

독립운동과 민족운동

위에서 언급한 대로 1909년 4월 황사용이 방화중과 함께 멕시코에 가서 메리다 지방회를 설립한 공로는 인정할 만하다. 이듬해 1월 그는 국민회 북미지방 총회장으로 선출되어 하와이를 방문하여 단합력을 키웠고, 1911년에 총회장직이 유임되면서 원동(러시아)으로 활동영역을 넓혔다.

1919년 그가 대한국민회 중앙총회 특파원으로 하와이에 파견되어 상해 임시정부의 지지를 이끌었고, 하와이 국민대표 기성회 회장으로 재의 동포의 결속을 위해 노력했고, 일제하의 서울 정동예배당과 신의주 산정현교회 등에서 강연회를 통해 국민 계몽과 애국심의 고취에도 힘썼다.

이후 흥사단과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지부 '독립'의 발기인, 상항의 대표단 대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합회 대표 등으로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에 헌신했다.

소천

해방이 되자 황사용은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후 그에게서 두드러진 활동을 찾을 수 없다. 그는 1964년 3월 21일에 향년 83세로 소천하여 남양주에 안장되었다. damien.sohn@gmail.com

1909년 4월 방화중과 함께 멕시코 메리다 지방회 교회 설립 달라스 남감리교대학교 졸업후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 부임 1930년부터 나성한인감리교회 9년 목회, 넷째주는 영어예배



호놀룰루 제일한인감리교회

메리다 감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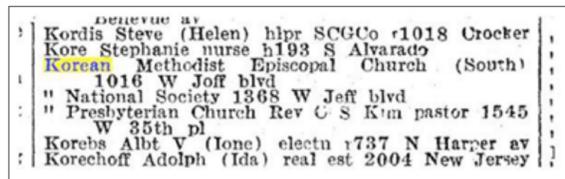
멕시코 한인 이민자 1,033명은 1905년 4월에 멕시코 연안 서남부 살리나크루스 항에 도착했고, 계약 노동이 해지되던 1909년 4월까지 만 4년간 24개 에네켄 농장에서 하루 30단의 에네켄을 자르는 중노동했다. 고종황제의 특사였던 박희병에 의해 황사용은 1909년 4월 국민회 북미지방 총회의 특파원이자 대한제국 대표로서 방화중과 함께 멕시코를 방문했다.

그런데 방화중이 열병으로 상항으로 귀환하자 그는 혼자 남아 314명이 모인 가운데 멕시코 지방회를 설립하고, 구제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그는 그곳 한인 동포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여 메리다교회를 조직하게 된다.

메리다 교회가 조직되기 1년 전인 1908년 7월에 김재선이 농장주에게 80페소를 지불하고 소유한 건물에서 주일마다 7, 80명의 한인 동포들이 각 농장에서 모여 서로 고생하는 이야기를 나누며 예배를 드렸다. 30평 크기의 이 건물에서 1908년 10월 5일에 전도회가 조직되고 성경공부와 예배를 드렸다.

황사용에 의해 국민회 메리다 지방회관을 건립하면서 이곳에서 메리다교회가 조직된다. 1910년 1월에 그가 국민회 북미지방 총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상항으로 돌아 오기까지 그의 선교활동은 계속되

이듬해 연회보고서에는 오클랜드, 삭도, 스타튼, 맨티카, 서니베일 지역이 그의 순회 사역지로 소개하였다. 오클랜드교회는 웨스터 스트리트의 7가와 8가 사이의 작은 그



1939년 나성한인회부, p. 1181.

학한다. 그는 3년간 공부하고 1920년에 졸업하였다. 그해 4월에 황사용은 호놀룰루 제일한인감리교회의 제 6대 담임목사로 부임한다. 함께 간 그의 누이동생 황혜수는 YWCA에서 활동하면서 주일학교 교장 등의 일을 맡아 그의 목회를 협력했다.

정치적 이념 갈등으로 감리교회에서 떠난 형제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황사용이 부임하던 1920

인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북가주와 중가주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도하고 설교하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다.

나성한인감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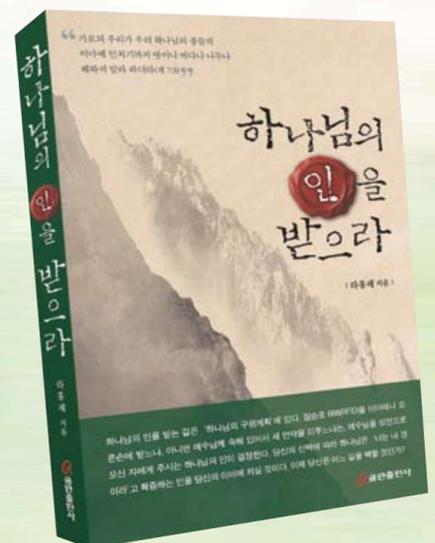
나성한인감리교회의 초대 담임목사인 한승권이 시카고로 떠난 후 1930년에 황사용이 부임하였다. 황사용은 1939년까지 9년간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강사: 라흥재 목사



도서 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리더십 코멘터리 (66)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훈련되고 준비된 리더는 최고의 기회를 잡는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기회는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기에 가장 좋거나 알맞은 시기를 가진다. 지혜로운 리더는 살아가는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결코 그냥 보내지 않는다. 그런데 이 좋은 기회를 부정적인 측면으로 의미를 부여하면 기회주의, 기회주의자가 된다. 기회주의는 어떤 일에 있어서 정세에 따라서 기회를 관망하고 지조 없이 편의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말하며, 기회주의자는 일정한 신념이나 주관 없이 형편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통찰력이 있는 리더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기회가 왔을 때 통찰력이 기회를 알아 볼 때이다. 당신은 기회를 선용하는가? 기회를 관망하는가?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기회를 잡는 리더가 되라.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기회를 잡아라

그리스의 시라쿠사에 여신 오카시오의 동상이 있다. 그런데 여신의 앞머리는 머리술이 풍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다. 심지어 발뒤꿈치에는 날개까지 달려있다.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동상일까? 바로 기회의 여신이다. 앞머리에 머리술이 풍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보자마자 잡을 수 있도록 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일단 지나친 이후에는 잡을 수 없도록 함이며, 발뒤꿈치에 날개가 달려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인 것이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인생이 힘들기만 하다. 우리 모두 불확실성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일단 지나간 뒤에는 기회를 잡을 수 없다.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스쳐 지나가는 기회를 잡는 지혜로운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

훈련되고 준비된 자만이 최고의 기회를 잡는다

미국의 인디언 중에는 독특한 인생 교육을 하는 부족이 있다. 자신의 딸이 성숙해서 결혼 적령기가 되면 옥수수 밭으로 데리고 나가 넓은 옥수수 밭 중에서 한 고랑을 선택하도록 한다. 그런 다음 지정

나 동작 따위를 되풀이하여 익히는 것을 말한다. 지금은 훈련되고 준비된 리더만이 최고의 기회를 잡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때이다.

인생 최고의 기회는 무엇인가?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내려준 금이 3개가 있다. 첫 번째 금은 황금이다. 황금은 경제적 여유를 말한다. 두 번째 금은 소금이고, 이는 건강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이다. 시간을 말한다. 이 세 가지 금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이고, 지금은 인생 최고의 기회이다.

혹시 당신도 '조금 더, 조금 더' 하면서 세상 이치에 어두운 순진한 처녀들처럼 여기까지 반순으로 온 것은 아닌가? 자기에겐 올지도 모르는 황제를 기대하면서 소중한 인생의 기회를 미루어 온 것은 아닌가?

우리 인생은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고, 아무리 후회해도 지나간 기회는 다시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기회이다. 몸을

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실컷 고생해서 남 좋은 일만 시킨' 꼴이 되는 것이다. 주어진 기회를 진지한 생각 없이 지나쳤다가 때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려도 기회는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리더들이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기회를 잡기를 바란다. 진실 되게 생각하라. 성실하게 행동하라. 그리고 가치 있는 결실을 맺는 리더가 되라.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이다

오래전 미국 서부 개척시대에 어떤 비즈니스맨이 금을 캐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이동식 레스토랑을 차릴 것을 계획했다. 그래서 전 재산을 투자해서 마차 10대 분의 천막을 구입했다. 그런데 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못해 현장에 도착해보니 이미 다른 비즈니스맨들이 조식을 구성하고 대규모로 식당을 운영 중이었다. 그는 대량의 천막을 쓰레기로 버릴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였다. 꿈과 비전을 이루어 줄 소중한 천막이 한 순간에 애물단지가 되었다.

그는 자리에 주저앉아 절망하고 있을 때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금

기회 잡으면 승리, 놓치면 패배... 통찰력으로 알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자 특권인 선택의지로 잡아

된 밭고랑의 끝까지 걸어가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제일 좋은 옥수수를 한 개 따게 만든다. 옥수수를 따는 규칙은 '절대로 뒤로 물서 설 수 없고, 일단 지나간 옥수수는 딸 수 없다'는 것이다. 오직 자신의 앞에 있는 것만 선택해서 딸 수가 있다. 옥수수를 딸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이 시험에서 거의 대부분의 결혼 적령기의 처녀들은 반순으로 끝까지 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세상 이치에 어두운 순진한 처녀들은 처음에 좋은 옥수수가 나타날 것 같은 기대감을 갖고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결국은 자기 앞에 주어진 많은 기회를 모두 다 놓치고 빈손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인디언들은 그들의 딸에게 남편감을 잘 고르도록 교육했다.

선택(選擇)은 여럿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행위이다. 인간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선택의지는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능력이자 특권이며, 구원의 계획에 있어 필수적이다. 우리 주변에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선택에 둔한 리더들이 많다. 훈련이란 기본자세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생각과 행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한 지금이 최선의 기회이다. 당신은 3개의 금을 어떻게 활용할까 있는가? 그리고 당신에게 지금은 어떤 의미인가?

기회를 통해 가치 있는 결실을 맺어라

미국 역사상 최대의 구두쇠라는 불명예를 안은 사람이 있다. '히티 그린'이라는 할머니인데, 1916년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발견된 재산과 자녀들의 이야기는 현대인들에게 많은 교훈을 전해준다. 할머니는 불을 피우면 돈이 든다고 말하면서 평생을 차가운 오트밀만 먹고 살았다. 심지어 할머니의 아들이 다리에 병이 났는데, 치료하면 돈이 든다고 생각하며 병이 낫는 것을 미루다가 병이 악화되어서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했다. 혹시 그냥 놔두면 나을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저금통장에는 1억불이 예치되어 있었다. 이런 사람을 두고 '가지기만 했다, 누리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비록 많은 것을 가졌다할지라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은 없다. 우

를 캐다 보니 바지가 금방 닳아 못 입게 되었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맞아! 조금 질긴 재료로 된 바지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절망에 빠졌던 비즈니스맨은 그 때 무릎을 쳤다. "그래! 저 못 쓰게 된 천막을 가지고 바지를 만들자!" 이것이 샌프란시스코의 무역상이었던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최초로 발명한 청바지의 기원이다. 이동식 레스토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 때는 실패하고 절망한 것 같았지만 그 천막으로 오히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기회를 놓쳤다고 한탄하고, 후회할 때가 있는가? 인생에서 기회를 잡은 사람은 성공했다고 박수를 쳐주지만, 기회를 놓치면 아픈 마음을 쓸어내릴 때가 생긴다. 기회를 잡으면 승리하고, 기회를 놓치면 패배한다.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모험이다.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딛을 때마다 우리는 모험을 감행하는 것이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기회를 선용해서 인생의 진정한 승리가 되기를 소망한다.

sondongwon@g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범사범대학교 교수)

돌맹이 교훈

지난 주간에는 3박4일 동안 학교가 대해 마련해주는 교수들의 연구를 위한 리트릿에 다녀왔다. 여름 방학 동안 학술지에 기고할 논문이나 집필, 창작연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말리부에 위치한 아름다운 수도원에서 자유시간을 마련해주는 학교의 배려다. 사무실에 앉아 있던 일상의 업무로 바쁘기 때문에 글을 쓰기는 커녕 책 한권 읽기가 어려워서 일주일에 하루, 이를 짊어 내어 동네 도서관에 가는 나에게는 참 고마운 시간이다. 일단 일상을 떠나 멀리 바다가 보이고 산으로 둘러싸인 자연 속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지고 생각이 정리되기 때문에 글쓰기에 도움이 된다. 몇달 전 연구 리트릿을 신청할 때 어떤 프로젝트를 집중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주일학교 교사핸드북을 쓰겠다고 메일을 썼었다. 몇년 전에 시작해서 대강 골격을 잡아 놓았지만 다른 글쓰기에 밀려서 미완성으로 남아 있는 프로젝트였다.

교사교육 핸드북을 쓰기 시작한 것은 학교가 원하는 교수로서의 출판 업적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한인 이민교회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나름대로 20여 년 동안 이곳저곳 다니며 교회 교사들을 위한 세미나를 인도한 내용들을 묶어서 한인교회 교육부에 게 전해주면 교사훈련에 사용될 수 있을지 알았을 때 마음에서 시작했던 것이다. 그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한인교회들이 교사훈련을 거의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일년에 한두 번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연중행사처럼 실시를 한다. 그러다보니 교사훈련의 내용에 연속성이 없어지고 각 교회 교육부에 맞는 훈련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교사훈련 세미나를 인도한 것을 핸드북으로 만들어서 각 교회가 자체적으로 교사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전해주고 싶었다. 나이가 60이 넘으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일들을 통해 얻은 것들을 다음 세대에 잘 전해주어야 한다는 일종의 부담이 마음속에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막상 수도원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책상 앞에 앉자 스스로를 향한 질문이 떠올랐다. "내가 왜 이 핸드북을 써야 하는 것일까? 과연 이민교회 교육부에 이 핸드북이 도움이 될까? 핸드북보다 차라리 내용을 풀어쓰는 책을 쓰는 것이 교회에 더 도움이 되는 않을까?" 등의 질문이었다. 첫 날은 그런대로 서론을 다시 풀어쓰고 첫 두 강의를 조금 더 잘 정리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전에 목상의 서클(한글로는 "미공"으로 번역)을 걷기 시작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중심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한 번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원을 만들고 있는 돌맹이들이 눈에 들어왔다. 학생들을 데리고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도 이곳에 여러 번 다녀갔지만 돌맹이 목상의 자료가 되었던 적은 없었다. 크기도 다르고 색도 다른 수많은 돌맹이, 어떤 돌은 깨져서 반쪽이 난 채로 두 동강이 함께 놓여 있기도 했다. 각 돌맹이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물에 깎이고 바람에 깎여 돌글을 읽을 모습을 한 채 이 높은 언덕에 있는 수도원까지 와서 목상의 원을 만드는 일에 눈을 담담하고 있었다. 돌맹이마다 자기의 스토리를 지닌 채 결국은 수도원 목상의 서클에서 조용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 달리 나에게만 허락하신 인생의 고유한 경험들을 통해 빛이시고 만드셔서 이미 마련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계획하셨음이 새롭게 다가왔다. 그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에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가져오실 것이다. 돌맹이를 통해 교사핸드북을 계속 써야할지 생각이 많았던 마음이 정리가 되는 귀한 시간이었다.

"하나님, 하나님은 돌을 통해서도 저를 가르치시는 자상한 분이시군요."

lpyun@apu.edu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p>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p> <p>담임목사: 이윤석</p> <p>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8:45 세례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 토</p> <p>Tel: (718) 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kc3.org</p>	<p>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재현</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16) 883-1977, Fax: (516) 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kc3.org</p>	<p>뉴욕새벽별장로교회</p> <p>담임목사: 정기태</p> <p>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세례기도: 오전 6:00 (화-토)</p> <p>Tel: (917) 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lee@yahoo.com</p>	<p>뉴욕새생명장로교회</p> <p>담임목사: 허준준</p> <p>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 오전 6:00 새벽기도: 오전 6:00</p> <p>Tel: (718) 637-1470 45-50 162 St. #2/FI, Flushing, NY 11358</p>	<p>뉴욕새사람교회</p> <p>담임목사: 이종원</p> <p>주일1부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3부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 461-2810(Fax 겸음), (917) 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www.kapcc.org</p>	<p>뉴욕센트럴교회</p> <p>담임목사: 김재열</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5:30(월-토)</p> <p>http://www.cpcofny.org Tel: (516) 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p>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p> <p>담임목사: 이만호</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18) 406-7577, Fax: (718) 938-1777 188-12 73 Ave., Fresh Meadows, NY 11366 www.nyanick.org</p>	
<p>뉴저지성도교회</p> <p>담임목사: 허상희</p> <p>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 342-9194, Fax: (201) 3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p>	<p>리빙스톤교회</p> <p>담임목사: 유상열</p> <p>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세례기도: 오후 1:30 수요 찬양예배: 오후 8:30</p> <p>Tel: (718) 961-2171, Fax: (718) 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p>빛과소금교회</p> <p>담임목사: 정순원</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후 1:50 찬양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30분</p> <p>Tel: (347) 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p>주비전교회</p> <p>담임목사: 이규분</p> <p>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찬양기도: 오후 5:00 영양예배: 오후 1:00</p> <p>Tel: (718) 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ra Rd., Manhasset, NY 11030</p>	<p>퀸즈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성국</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p> <p>Tel: (718) 886-4040, Fax: (718) 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org</p>	<p>퀸즈한인교회</p> <p>담임목사: 김재열</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p> <p>Tel: (718) 672-1150 Fax: (718) 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3ny.org</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 665-0009 Fax: (323) 665-0046 ■ N.Y.: Tel: (718) 886-4200 Fax: (718) 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입니다.</p>	
<p>브라질 새소망교회</p> <p>담임목사: 박재호</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p> <p>Tel: (5511) 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AI-SAO PAULO-SP-BRASIL</p>	<p>아르헨티나 제일교회</p> <p>담임목사: 최광언</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 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p>	<p>칠레 한인연합교회</p>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호기회: 아침 7:40 영, 초, 중, 고등예배: 오전 9:30(토) 오후 7:30</p> <p>Tel & Fax: (562) 556-7828, (562) 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p>토론토 가든교회</p> <p>담임목사: 김성민</p> <p>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00(영양)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416) 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p>하와이 행복교회</p> <p>담임목사: 이남수</p> <p>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양)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p> <p>Tel: (808) 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p>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p> <p>담임목사: 김성훈</p> <p>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성경강좌: 오후 7:00 베네딕도: 오전 8:00 금요찬양: 평일 저녁, 대령 금요찬양: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7:30</p> <p>www.pcovv.org Tel: (604) 584-5780, Fax: (604) 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p>브라질 서울교회</p> <p>담임목사: 하경남</p> <p>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p> <p>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p>	<p>브라질 한인교회</p> <p>담임목사: 한봉현</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1-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www.kc3ny.org</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일규</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양)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 947-5252, Fax: (808) 947-5151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p>멕시코 선교 본부 교회</p> <p>선교사: 임한근 목사</p> <p>멕시코 번식 신학교 교수</p> <p>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 2, 3층 대위 설교)</p> <p>Tel: (52) 333-3507-4111 E-mail: hanimkr@hanim.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uajara MEX(멕시코)</p>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이론과 실제

지금은 정보의 홍수시대다. 손바닥 안의 스마트폰에는 세계가 들어 있다. 버튼 몇 개만 누르면 알고자 하는 정보와 지식이 자르르 나열된다. 참 편리한 한편 두려워지기도 하는 세상이다. 감추고 싶은 나의 비밀들도 그렇게 공개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생긴다.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는 이제 옛이야기가 되고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카메라는 소리뿐 아니라 동작까지를 다 찍어 보관하고 있다. 그러니 닭을 잡아먹고 오리발을 내민다는 것은 연감생심이다. 몇월 몇시 몇분 몇초에 여기 혹은 저기서 당신이 무

슨 말과 무슨 행동을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 무슨 핑계도 통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쉽고 간단하게 찾고 알 수 있다 해도 그런 것들은 이론에 불과하다. 남들이 공들여 경험한 실제들을 알려준다 해도 그런 것들이 내게로 오면 그저 이론에 불과하다. 우리의 문제가 여기서 비롯된다. 남의 실제가 내게는 이론이고 나의 실제 역시 남들에게는 이론일 수밖에 없기에 그 이론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사랑을 알려주는 말씀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사는 길을 제시하는 복음이며 허다한 삶의 문제들을 살피는 척도고 답을 주는 해결책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절대불변의 진리도 이론이다. 진리를 내게 적용하여야 할 절대 필요가 작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안타까우심이 여기에 있다. 받아들여 먹어야 사는데 죄가 들어온 이후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며 심지어는 대적까지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

고 있으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목이 타게 외치셔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권리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라는 것이 있다. 이 책임과 의무는 강제성을 띤다.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고 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이 따르는 강제성이다. 대한민국에도 인간사를 정한 법이 있다. 이는 이로, 칼은 칼로 대응한다는 내용들이다. 남에게 해를 입히면 그에 해당하는 해를 당해야 하고 남의 생명을 빼앗았으면 자기의 생명을 갚아야 한다는 준엄한 규정들이다. 이는 법의 이론이 이론에 머물지 않고 실제에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은 법을 지켜야 하는 존재들에게 하소연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진히 만드셨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듯 저렇듯 상관이 없을 수 없다. 사람의 죄됨과 그 탓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아파하신다. 그 아픔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내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놀라운 약속까지 더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를 사람이 모른다. 하나님은 두드리는 문은 특정한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이다. 75억이 살고 있다면 그 75억의 문을 모조리 다 두드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드리는 문을 여는 사람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픔이다. 문을 열지 않는 자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고 있는 까닭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고 있는 모든 존재를 다 구원하시려 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다. 아슬아슬하지도 않다. 넉넉하다. 차고도 넘친다. 여기에는 이론이 실

제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의 열차를 타고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누구에게나 알려지고 열려 있으나 그 쉬운 주의 이름 즉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마저 부르기를 주저하거나 외면하고 있다. 세상의 일은 이론을 실제에 적용해야 하지만 인생들의 가장 중요한 영원한 삶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가 실제가 된다. 이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운동이 숨쉬기 운동이지만 사람이 죽는 것은 그 쉽다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숨이 멎어 죽는 것과 같이 이론을 습득하기는 매우 쉬운 세상이나 그것을 실제에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입술 몇 번만 달짝이면 되는 아주 쉬운 복음이라는 이론을 부르는 그 단순한 실제에 적용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것은 어리석음을 넘어 다시없는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그리도 어려운 실제인가? hanmac@cmi153.org



새 총회장 지용웅 목사, 부총회장 강일진 목사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AGKDC) 제37차 정기총회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AGKDC) 제 37차 정기총회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2:4)"라는 주제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는 선출된 임원 및 지방회장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지용웅 목사 △부총회장 강일진 목사 △총무 서세광 목

사 ▲지방회장 △동북부 이성달 목사 △중부 김창만 목사 △남부 김용철 목사 △중남부 김백신 목사 △중남부 홍형선 목사 △서북부 안영일 목사 △서남부 박경희 목사. 또 안수식을 통해 김문, 김관, 전효근 등 3명을 목사로 임직했다. (정리: 유원경 기자)



월드미션대학교 총장이 취임식에서 취임한 임성진 총장이 이임한 송정명 총장에게 학교기를 전달받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임성진 신임총장 '간호대학설립 추진'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이취임식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이취임식이 6월 2일 오후 1시 40분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에서 열렸다. 본교 학위수여식에 이어 열린 이취임식은 신선목 교수의 사회로 시작, 윤경호 목사가 기도했으며 레스터 에드윈 루이즈 박사(ATS 시니어 디렉터)가 '이해를 위한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임승환 이사가 송정명 이임 총장에 대한 공로사를 했으며 주익성 동문회장이 공로패를 증정했다. 이어서 신임총장 임성진 박사가 서약했으며 윤성환 이사장이 공포하고 취임패를 증정함으로써 임성진 박사가 본교 3대 총장으로 취임하게 됐다. 이어 교기 이양이 있었고 이상명 총장(미주장신대), 김지훈 목사가 축사했으며, 윤주동 장로(상파울 OMC)의 영상 축하메시지가 상영됐다. 이날 이취임식은 남종성 목사(WEMA총회장) 축도로 마쳤다. 송정명 이임총장은 "6년 동안 총장직의 기간은 의미 있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보람된 기간이라 자

부한다"며 "30년 학교역사의 5분의1을 섬겼다. 학우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20년간 성실하게 섬겼던 임성진 부총장에게 이임하고 물러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계속 월드미션대학교 교직원 교수 학생들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수행할 수 있는 학교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진 신임총장은 "부족한 중을 총장으로 취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린다"며 "월드미션대학교는 교회가 필요한 사역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개발하고 교회들이 학생들을 위탁하는 학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사역은 단지 교회의 사역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기독교지도자들이 사역하는 곳이 많다. 기독교 NGO프로그램을 확장해 나가겠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인해 간호사들이 필요하다. 기독교정신으로 사역하는 간호사를 양성하는 간호대학설립을 추진해 나가겠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지역 기독교대학 학위수여식



2018 남가주 한인신학교 학위수여식이 일제히 거행됐다. 사진 왼쪽위 미성대학교 오른쪽위 미주장신대학교 사진 아래 왼쪽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사진아래 오른쪽 월드미션대학교

월드미션대학교 2018 학위수여식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목사) 2018 학위수여식이 2일 오후 1시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에서 열린 가운데 93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임성진 부총장의 인도로 교수단과 졸업예정자들이 입장하자 인도자가 개회선언을 한 후 이금희 교수가 기도했다. 이날 송정명 총장은 훈화를 통해 "학생들과 교직원, 이사와 기도후원자들과 학우들의 가족에게 감사 한다"고 말하며 "졸업을 하고 사역현장에 나가면 캠퍼스보다 모든 것이 녹록하지 않을 것이다. 급변하는 세대를 살아가야 하기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할 때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더 꿇는 기회를 갖고 하나님의 세

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학교는 이제 라티노는 물론 중국, 동남아, 아프리카 지역의 영적 지도자 양육을 위해 더욱 전진할 것이다. 모교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더욱 전진하는 졸업생들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졸업생 아케네스는 "수년 동안 성경에 따라 가르치고 삶의 분이 되어주는 교수님들께 감사 한다"고 감사 한 후 김명신 학우의 인도로 졸업생과 회중, 교수들이 함께 헌신의 기도를 드림으로 수여식을 마쳤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송정명 총장 이임과 임성진 3대 총장의 이취임식이 있었다. (이성자 기자)

미성대학교 제 16회 학위 수여식

미성대학교(총장 류종길 박사) 제 16회 학위수여식이 2일 오전 10시 30분 본교에서 열려 학사 3명, 목회학 석사 1명, 상담학 석사 15명, 경영학 석사 1명, 목회학박사 8명, 상담학박사 7명 등 총 35명이 학위를 받았다. 황의정 목사(대학원장)의 인도로 시작된 학위수여식은 류호주 장로 기도에 이어 최경환 목사(미주성결교회 총회장)가 '잊지 말아야 할 것'(신9:11-20)이란 제목으로 "졸업은 마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사회에 적용하는 것"이라며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고 강권했다. (이성자 기자)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학위수여식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6월 4일 오후 5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본당에서 김현완 교무학장 사회로 시작, 제임스조 학생학장이 기도했으며, 이병구 박사원장이 성경 봉독했으며 한기홍 이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역자가 되십시오'(고후9:8)라

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최규남 총장이 학위수여를 했으며 김현완 교무학장이 졸업생 프로필 소개를 했다. 이어 우수학생 상장수여를 가졌으며 신승훈 총회장이 축사, 최규남 총장이 권면했으며 박창희 졸업생이 감사했으며 김광신 전임총장이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 총장이취임 축하 뮤직페스티벌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박사) 총장 이취임 축하 제 23회 학생 뮤직페스티벌이 5월 30일 오후 7시30분 폴번스쿨 지하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위대한 국민악파(The Great Musical Nationalism)'이라는 주제로 열린 학생뮤직페스티벌은 국민악파의 가장 대표적인 러시아, 체코,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영국,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작곡가들의 곡들을 연주했다. 마지막 곡으로는 조국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강산을 배경으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다시 찾은 영광을 애국가로 표현한 '코리아환상곡'을 월드미션대학교 학생들과 라크마 챔버합창단, 그리고 LA영플레이어스 합창단이 함께 불렀다.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학교 학생음악회에서 전출연자들이 코리아환상곡을 부르고 있다

동부교계 게시판



뉴저지한인목사회 정기총회

뉴저지한인목사회(회장 박근재 목사) 제 9회 정기 총회가 7월 2일(월) 오전 10시 30분 시나브로교회(담임 박근재 목사)에서 열린다. 회비는 100달러.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에 한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문의: (201)815-9254 총무 홍인석 목사

“강변의 노래” 출판과 한영숙 목사 은퇴 기념회

메트로폴리탄연합감리교회 담임 한영숙 목사 은퇴 기념회와 김종환 목사의 저서 “강변의 노래” 출판기념회가 6월 10일(주) 오후 4시 본 교회당에서 열린다. 한영숙 목사는 1982년 맨해튼에서 메트로폴리탄고려연합감리교회를 개척해 35년간 담임목사직을 수행해 왔다. 한편 “강변의 노래”는 교회설립 당시부터 평신도처럼 교회를 섬겨온 해봉 김종환 목사(한영숙 목사의 남편)의 시와 그림을 담은 책이다.

▲문의: (212)758-1040, (646)642-2314

뉴욕장로교회 김학진 목사 취임감사예배

뉴욕장로교회 5대 담임 김학진 목사 취임 감사 예배가 6월 17일(주) 오후 4시 뉴욕장로교회 본당(43-23 37th Avenue, Long Island City)에서 열린다.

▲문의: (718)706-0100

영상설교 세미나

영상설교 세미나가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뉴저지말씀기도원(493 Main St Fort Lee)에서 열린다. 강사는 김석급 목사(뉴미디어커뮤니케이션)로 등록비는 10달러. 자료와 점심이 제공된다. 준비물은 노트북. 마우스 필수 지참. 뉴저지한인목사회가 후원한다.

▲문의: (201)615-7334 박영주 목사

중고등부 전도사 청빙

PCA교단 소속 뉴저지 복음장로교회(담임 최은수 목사)에서 중고등부 파트타임 교역자를 청빙한다. 자격은 정규 신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전도사로 유스그룹 경험자. 제출서류는 이력서(사진첨부), 신앙고백서, 자기 소개서, 추천서 1부를 이메일(eunsochoi@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마감은 7월 30일.

▲문의: (201)232-2285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하나님의 손만 의지하라”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가 지난 4일 오전 8시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열렸다. 뉴욕을 방문 중인 양병희 목사(영안교회 담임)가 호스트 했으며 설교는 김재열 목사(뉴욕센트럴교회 담임)가 전했다.

양병희 목사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뉴욕센트럴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으며 3일 저녁에는 뉴욕 영안교회(담임 김경열 목사) 설립 2주년 감사예배에서 말씀을 전했다. 또 6일 수요일에는 필그림선교교회(담임 양준길 목사)에서 설교했다.

양병희 목사는 이날 “뉴욕의 목회자들을 만나 뵙고 싶었다”며 “반갑고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양병희 목사는 2013년 뉴욕교협 회장으로 김중훈 목사가 재직할 때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강사로 초청된 바 있다.

이날 기도회는 김경열 목사 사회로 환영사 김승희 목사(뉴욕초대교회), 인사 양병희 목사, 기도 김종훈 목사(뉴욕예일장로교회), 찬양 김영환 전도사, 설교 김재열 목사, 기도회, 인사 김호진 장로(필그림선교교회), 축도 방지각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재열 목사는 에스겔서 37장 15-17절을 본문으로 “자신의 색깔이 진과광”이라고 전제하고 지난 대선을 보면서 유튜브 SNS 등을 모두 닫아버렸는데, 이유는 “경건의 유익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재열 목사는 “현재 남과 북, 미국의 진행상황을 볼 때 미래에 대해 굉장히 염려가 되지만 목회자로서 교우들에게 가르칠 말씀은 본문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다. 네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 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지

않 문제는 누구의 손에 의해 평화와 해방이 올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고 “궁극적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손만 의지해야 한다. 아무리 치밀한 전략을 세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결코 이뤄지지 않는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쓰임 받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도회는 △국가와 민족 세계평화(북미회담)를 위해: 송병기 목사(목양장로교회) △교회와 부흥을 위하여: 최창섭 목사(뉴욕에벤에셀선교교회) △영적 각성과 영성회복을 위하여: 양승호 목사(순복음연합교회) 제목으로 통성 기도했다.

김호진 장로는 ‘북한나무심기운동’ 사업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지난 수요일(5월30일) (북한에서) 돌아왔다”며 “북한이 너무 많이 변해서 상상을 뛰어넘는 변화가 왔다”고 말하고 뉴저지에서 70-80대 평신도들이 하고 있는 ‘영적대각성과 개혁’ 기도회를 소개하며 뉴욕 목회자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유원정 기자)



뉴저지광성교회 설립기념 감사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강하고 담대하게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라!”

동부개혁장신 제29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동부개혁장신 제29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졸업생들과 교수, 이사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새벽별장로교회 설립 5주년 감사예배를 마치고 참석 목회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믿음의 길을 따라 순종하라”

뉴욕새벽별장로교회 설립 5주년 감사예배

뉴욕새벽별장로교회(담임 정기태 목사)가 설립 5주년을 맞아 지난 3일 저녁 5시30분 감사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정기태 목사 인도로 기도 이종태 목사(심령이간한교회 담임), 축가 이재원 집사(뉴욕장로교회), 말씀선포 문중은 목사(KAPC 뉴욕노회장), 봉헌기도 정인수 목사(뉴욕좋은교회), 편편 허윤준 목사(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 축사 이수영 목사(등대교회 담임), 광고인사 정기식 집사, 축도 이윤석 목사(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 애찬기도 이숙규 전도사 순서로 진행됐다.

문중은 목사(새영장로교회 담임)는 “아브라함의 순종”(히11:6-16)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DNA를 가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 삶의 터전을 버리고, 생명을 버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축복의 땅, 영광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

뉴저지광성교회 설립기념 감사예배

뉴저지광성교회(담임 김지희 목사) 설립기념 감사예배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김재열 목사) 주관으로 6월 2일 오후 6시 본 교회당에서 열렸다.

예배는 김지희 목사 인도로, 기도 이종식 목사(갯랜드교회), 성경봉독 박해창 목사(갈릴리교회), 축가 김옥선 권사(뉴저지하나교회), 말씀 허상희 목사(뉴저지성도교회), 설립경과 보고, 교역자에게 편편 조성훈 목사(뉴욕제일장로교회), 성도들에게 편편 박형기 목사(뉴저지개혁장로교회), 축사 김재호 목사(부노회장, 뉴욕시온산장로교회), 이종태 목사(동부개혁장로교회 신학교 총동문회장, 뉴욕심령이

간. 문 목사는 “아브라함은 이 땅보다 더 큰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았어. 모든 것을 풍성하게 받았지만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았다. 믿음의 사람은 허영에 빠지지 않고 인내와 여유, 절제로 살아간다. 사명의 땅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허윤준 목사는 사무엘상 2장 18-21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섬기라,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며 믿음 안에서 자녀교육 하라, 담임목사가 감동하도록 신앙 생활하라”고 권면했다.

“정기태 목사의 매형”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수영 목사는 “교회 문 닫지 않고 계속하게 된 것, 그릇을 크게 가지면 채워진다는 마음을 가진 것, 새벽에 더 밝아지는 새벽별장로교회는 성령께서 주신 이름”이라며 축하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총회장 김재열 목사) 소속인 뉴욕새벽별장로교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를 실천하는 교회를 목표로 삼고 있다.

▲연락처: (917)733-7387

(유원정 기자)

가난한교회), 헌금기도 오종민 목사(뉴저지우리교회), 만찬기도 김두해 목사, 축도 이원호 목사(중부뉴저지장로교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뉴저지광성교회는 2017년 10월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개척을 꿈꿨으며, 12월 17일 교회 이름을 “뉴저지광성교회”로 정하고 첫 예배를 드렸다. 주의 소리로, 즉 하나님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될 사명을 갖고 개척을 시작했다. 3월 4일 팰리세이드파크 학원을 빌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으며, 가든노회 불노회에서 설립청원 허락을 받고 5월 6일 현 장소(493 Main st 2F Fort Lee)로 이전했다.

뉴저지광성교회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원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복음의 파수꾼이 되는 교회, 우리교회만 생각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교회, 새생명을 찾아, 품고, 낳고, 길러 제자 삼는 교회, 성도들이 서로 동고동락하는 교회, 소외된 이민사회를 돌보고 섬기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다.

▲연락처: (917)202-6838

(정라: 유원정 기자)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영춘 목사) 제 29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지난 6월 4일 저녁 7시 퀸즈장로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이날 목회학석사 13명, 여교역학 1명, 신학사 2명 등 총 16명이 졸업했다.

이날 학장 장영춘 박사가 참석지 못해 김성국 박사가 학위수여 및 시상, 훈시를 진행했다.

김성국 박사는 장영춘 학장을 대신하며 “최선을 다하라, 사람을 키우라, 될 때까지 하라”는 평소 장학장의 가르침을 전했다.

예배는 이사장 김성국 박사 사회로 기도 이종원 목사, 성경봉독 허윤준 박사(이사), 찬양 글로리아시어즈, 말씀선포 김재열 목사(총회장), 학사보고 이규본 박사(학감), 학위수여 김성국 박사, 시상, 훈시 김성국 박사, 졸업생을 위한 기도 이종태 목사(총동문회장), 격려사 정관일 박사(캐나다분교장), 축사 이용걸 박사, 축가 이재환 전도사, 감사 김희태, 기념품 증정(졸업생 대표 김희태, 재학생대표 김정민), 광고 이종원 목사(총무처장), 축도 강기봉 목사(학생처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재열 목사는 “강하고 담대하라!”(수1:1-9)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리더십 출발 앞에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둘째, 임마누엘의



할렐루야2018 뉴욕복음화대회 제 2차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설교 이용걸 목사, ‘레위기’ 로 도전

뉴욕교협 할렐루야복음화대회 2차 준비기도회

뉴욕교협이 오는 7월 9일 할렐루야2018 뉴욕복음화대회를 앞두고 제 2차 준비기도회를 가졌다.

31일 뉴욕장로교회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회장 이만호 목사는 3주간의 모스크바와 한국 방문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할렐루야 대회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크게 역사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이번 대회에 변화되는 점을 소개하고 기도를 당부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포스터는 이번 주간에 도착하게 된다.

1부 예배는 부회장 정순원 목사 인도로 기도 조원태 목사, 성경봉독 송윤섭 장로, 특송 김영환 전도사, 설교 이용걸 목사, 특별통성기도 김기호 목사 김영호 장로 최현준 목사, 광고 김진화 목사, 축도 신현택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용걸 목사(뉴욕장로교회)는 “레위기에서 본 목회자”(레8:1-9)라는 제목으로 저서 “레위기 강해”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레위기는 목회자들의 책”이라며, “성경 66권을 한권으로 요약하면 로마서 1-11장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고 믿을 수 있나, 12-16장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이며 레위기 1-17장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게 되는가? 18-27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고 제사장 직무 즉, 목회자의 직무에 대해 설명했다.

이용걸 목사는 “목사의 영성은 기도(성도를 위하여, 새벽기도...)이며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마음의 불을 끄지 말고 항상 십자가(나무)를 생각하라”고 말했다.

또 제사장의 위임으로 자결과 정결의식, 예복(구원의 확산), 세마포 옷(성도의 좋은 행실), 그리스도의 옷(주님 본받기)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며 속죄제(회개), 번제(헌신),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사역을

약속을 믿는 자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영적 전쟁의 무기인 말씀의 검,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백전백승 주 앞에 승리하는 그날까지 전진하라”고 말했다.

격려사를 맡은 정관일 목사는 “자신이 하는 일이 귀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의욕을 가진 사람을 찾고 만나고 자신이 의욕적인 사람이 돼 성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를 맡은 이용걸 목사는 “어려운 신학과정을 마치고 졸업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좋은 신학교에서 바른 신학을 배운 것, 주의 길을 가게 된 것”을 축하하며 “개혁신앙을 세계에 알리는 동역자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답사에 나선 김희태 졸업생 대표는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졸업생이 된 것을 감사한다”며 “교수님들의 헌신과 보살핌,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며 부끄럼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졸업생 명단 및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목회학석사: 김석남(공모상), 김주현(이사장상), 김현석, 김희태(최우수상), 문대석, 박화중, 심성희(우수상), 엄순애, 이현택, 전성호, 제갈수미, 현종영, Yu Jie Chen △여교역학 김진화 △신학사 장수자, 최의화.

동부개혁장신은 1987년 개교해 1990년 1회 졸업식에서 17명이 졸업한 후 2018년 현재까지 목회학석사 234명 등 총 479명이 졸업했다.

(유원정 기자)

설명했다. 또한 “제사장의 사명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과 축복하는 것이며 다른 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고 술 먹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용걸 목사는 결론으로 “목회자의 양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풍족)며 “최선을 다해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하자”고 당부했다.

2부 준비진행과정 보고는 총무 김희복 목사 사회로 이만호 회장 인사 후 최호섭 목사(유년분과위원장)가 어린이할렐루야 대회(감사 캐빈윤 목사, 퀸즈한인교회)에 대해 발표하고 자원봉사 교사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원 목사(행사협력분과위원장)가 원주민선교(7월29일-8월4일)에 대해, 김준원 목사(청소년센터 사무총장)가 청소년 할렐루야 대회(감사 리사송 전도사)에 대해 각각 보고했다.

또 한국교양인들의 신분문제 해결을 위해 강명순 권사가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합성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권사는 “미국 내 신분이 없는 임영아출신 한인이 2만명(40대, 50대, 60대) 정도 되는데(전체 3만5천명), 현재 법안에 상정돼 상하원 법사위까지 올라와 있다”며 기도를 부탁했다.

이날 폐회기도 및 식사기도는 이태문 목사가 맡았다. 한편 교협은 이번 할렐루야대회가 주말이 아닌 월요일부터 시작되고 첫날은 자녀와 함께 하는 집회로 K-날 크리стен밴드 라스트를 초청한다. 둘째 날에는 다민족을 겨냥해 여러 찬양팀을 세운다고 밝혔다.

3차 기도회는 6월 11일 임실행 위원회와 함께 열린다. 장소는 배이아이드장로교회(담임 이종식 목사)이며 시간은 오전 10시30분.

(유원정 기자)

남가주지역 2018 VBS 일제히

6월2일 LA연합감리교회부터 8월7일 베델한인교회 소망부까지

날짜	교회	문의
6/2-3	LA연합감리교회	(310)645-3699
6/7-9	코로나감사한인교회	(951)734-1909
6/9-10	선한목자교회(영어부)	(909)591-6500
6/12-19	샌디에고연합감리교회	(858)279-9191
6/13-15	남가주사랑의교회	(714)595-3089
	ANC온누리교회	(818)834-7000
6/13-16	사랑의빛선교교회	(626)744-9191
	LA사랑의교회	(213)386-2233
6/14-16	샌디에고합빛교회	(858)874-2414
	LA한인침례교회	(213)383-4982
6/18-20	동양선교교회	(323)466-1234
	웨스트힐장로교회	(818)884-2391
	베델한인교회(유년부, 초등부)	(714)444-3031
6/18-21	인랜드교회	(951)202-2956
6/19-22	샌디에고갈보리장로교회	(858)278-3210
	에브리데이교회	(818)832-6628
6/20-22	생수의강선교교회	(562)682-6527
	안디옥장로교회	(818)249-2871
6/20-23	선한목자교회	(909)591-6500
	글로벌선교교회	(909)396-4441
6/21-23	대홍장로교회	(310)719-2244
	디사이플교회	(949)502-4923
	리버사이드침례교회	(951)687-4070
	충현선교교회	(818)549-9191
	한길교회	(323)735-0200
6/21-24	소중교회	(714)990-9191
6/22-24	나성한인교회	(323)221-9531
	주님의영광교회	(213)235-7065
	파사데나장로교회	(626)793-2191

2018 남가주 지역 VBS가 6월 2일 LA연합감리교회를 시작으로, 8월 7일 베델한인교회 소망부까지

6/24-27	주님세운교회	(310)325-4020
6/24-30	토크스조은교회	(310)370-5500
6/25-27	벨리연합감리교회(유치부)	(213)507-0744
6/27-30	벨리연합감리교회(초등부)	(818)488-4862
6/25-28	포도원교회	(310)513-9191
	얼바인침례교회	(949)857-9425
	토크스제일장로교회	(310)618-2222
6/25-29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714)380-2020 323-0797
6/26-29	감사한인교회	(714)521-0991
	베델한인교회(유아부, 유치부)	(949)854-4010
	선한정지교회	(626)913-6611
6/27-29	남가주기쁨의교회	(310)326-0300
6/28-30	미주평안교회	(213)381-2202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714)893-1652
	유니온교회	(626)858-8300
	은혜한인교회	(714)446-6200
6/28-7/1	남가주동신교회	(714)680-9556
7/9-13	나성영락교회	(323)227-1400
7/11-14	나성금란교회	(310)973-5106
	나침반교회	(562)691-0691
7/13-15	오렌지한인교회	(714)871-8320
7/25-28	풀러튼장로교회	(714)916-4809
		(240)595-0175
7/26-29	남가주든든한교회	(213)481-2779
8/7-10	베델한인교회(소망부)	(714)444-3031

일제히 열린다. 올해의 주제는 'Rescued by Jesus', 'Shipwrecked', 'Time Lab', 'Game On!(베폰 1:3)', 'Soar, flying by faith, not by sight', 'Babylon Adventure', '온 마음을 하나님께', '예수님의 사랑',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수1:9)' 등 다양한 주제로 열리게 된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미주복음방송 목회자 세미나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는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18일(월)과 25일(월) 양일간 개최한다. 강사는 감사한인교회 원로목사이자 미주복음방송 전 이사장을 역임한 김영길 목사이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문의: (714)484-1190

부모자녀소통 세미나

인랜드교회는 부모자녀소통세미나를 10일(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 45분까지 교육관 초등부채플(#109)에서 갖는다. 강사는 김현경 교수(엘드미션대학교).

▲문의: (213)505-4724, (626)757-1641

빛내리교회 VBS

빛내리교회(담임 정찬수 목사 1301 Abrams Rd, Richardson, TX) VBS가 12일(화)부터 14일(목)까지 개최된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문의: (972)238-1127

살롬장애인선교회 제19회 장애인가족 초청 야외회

살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는 창립 19주년을 기념해 '제19회 장애인가족 초청 야외회'를 9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Whittier Narrows Recreation Area에서 개최한다.

▲문의: (323)731-7724

두나미스장로교회 이전

두나미스장로교회가 여바인 지역(18004 Sky Park circle #260)으로 이주했다. 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30분, 주일 오전 9시30분(영어), 11시(한어)로 진행된다.

▲문의: (714)595-6636

담임목사 청빙

얼바인침례교회는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정규목사교육과정(M.Div)을 이수하고 침례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목회자 혹은 타 교단에서 안수 받은 목사의 경우 미 남침례신학대학원에서 남침례교단의 교리와 신학배경을 6개월 정도 이수한 침례 받은 자이며 목사안수 후 5년 이상 담임 또는 부목사로 헌신한 이종 언어가 가능하고 미국내 합법적 체류에 걸림사항이 없는 자이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학위증명서(학부, 신대원) 및 목사안수증명서, 설교 CD/DVD/USB 2개 또는 동영상 주소, 목회비전 및 계획, 본인, 사모 및 가족소개서(신앙관, 목회경력, 가족사진 포함), 추천서 2매(각 추천인의 밀봉날인)이며 기한은 6월30일. 얼바인침례교회 청빙위원회(Irvine Baptist Church,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로 제출하면 되고 전화문의는 사절.

▲문의: Pastoralcall.lib@gmail.com

어스틴한인장로교회 VBS

어스틴한인장로교회(담임 이승태 목사) VBS가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개최된다. 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15분.

▲문의: (512)694-8939, (972)816-1454



남가주든든한교회 임직식을 마치고 안수집사와 장로 부부(상) 신임권사(하)

남가주든든한교회 설립17주년 임직식 장로장립 2명, 안수집사 8명, 권사 4명 세취

남가주든든한교회(담임 김현인 목사, KAPC 로스앤젤레스노회)는 설립 17주년 감사예배와 함께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을 가졌다.

3일 1, 2부 예배에서 담임 김현인 목사는 3일(주일) 1, 2부를 통해 드러진 예배에서 담임 김현인 목사는 '새로운 공동체'(고후 5:11-21)의 제목으로 "앞으로 우리교회는 자랑거리가 넘치고 넉넉한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 화목하게 사명을 이뤄가기 바란다"고 설교했다. 한편 주일 오후 3시 손덕수, 오영호 장로 장립을 비롯해 박남준, 우재현, 이재영 안수집사 취임식, 임성호, 윤태원, 마성수, 조한규, 최민 안수집사 임직식, 김선영, 김영애, 방경옥, 최현옥 권사 취임식을 가졌다.

담임 김현인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임직예배는 김성일 목사(노회서기) 기도와 박대원 목사(노회장)의 설교가 있었다.

박 목사는 '성전의 기둥'(왕상 7:15-22)이란 제목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입구에 세워진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하며 "오늘 세워진 임직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세움 받은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에 서 있다는 의식을 꼭 가져야 한다. 이 귀한 직분은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임직자 서약과 안수기도가 있는 후 임직패를 전달하고 본 교회에 일꾼으로 세워짐을 공포했다. 이날 임직자와 교우들을 향해 김만수 목사와 차병학 목사의 권면이 있는 후 오은규 목사와 박신욱 목사가 축사의 말을 전했다.

이에 신임 손덕수 장로는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그동안 지켜보며 기도해 주신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 비우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많은 부분들이 있다.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하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답사의 말을 전했다.

남가주든든한교회는 2001년 6월 3일 설립됐으며 2009년 김현인 목사가 2대 목사로 부임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성자 기자)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35주년 축하 '크리스찬문학' 29집 출판기념회 겸해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회장 정지운 목사) 제 35주년 기념 축하행사 및 크리스찬문학 29집 출판기념회가 2일 오전 10시 로텍스 호텔에서 문인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행사에 앞서 김학정 이사의 사회로 드러진 예배는 김용성 장로 기도, 최학량 목사 설교, 이태환 목사 축도로 진행됐다.

최학량 목사는 '변화 산의 영광'(막9:2-8)이란 제목으로 "주님 섬

김의 선두주자들이 돼 영적인 깊이를 체험을 하는 성도가 되자"고 전했다.

이어 이창윤 시인의 '문학과 생활'이란 주제의 강연이 있었으며 허철, 조애영 시인의 시낭송이 있었다.

2부 순서는 출판 기념회와 음악회로 진행됐다.

(이성자 기자)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주관 목사안수식에서 순서맡은이들과 안수자들이 찬양하고 있다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주관 목사 안수식 강태준 등 8명 안수 받아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주관 목사 안수식이 6월 2일 오후 4시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에서 열렸다.

김대성 목사 인도로 시작된 목사 안수식은 윤경호 목사(증경총회장)가 기도했으며 남중성 목사가 '목양의 자세'(요21:15-17)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안수 받는 목회자들이 서약했다.

이어 이재현 목사(증경총회장)가 권면과 축사를 했으며 안수 받은 자 대표로 강태준 목사가 답사했으며 김지광 목사(증경총회장)가 축도했다.

다음은 이날 목사안수를 받은 목회자 명단이다.

최남수, 강태준, 김학철, 김남일, 김정득, 유광미, 진성훈, 황요섭.

(박준호 기자)



러브인뮤직 정기연주회에서 디스어빌리티 오케스트라가 공연하고 있다

인종화합 목적 창립 가주 비영리 음악봉사 단체 러브인뮤직 제 11회 정기연주회

러브인뮤직(Love in Music 대표 변홍진) 제 11회 정기연주회가 6월 2일 오후 4시30분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 교육관에서 열렸다.

변홍진 대표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설립된 러브인뮤직이 11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연주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러브인뮤직을 사랑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 말했다.

이날 연주회에는 봉사자로 구성된 러브인뮤직 앙상블의 연주 2곡과 각 봉사처 수혜 어린이와 레슨

봉사자가 악기별로 팀을 이뤄 곡씩 연주하는 무대로 펼쳐졌다.

또한 장애학생들과 봉사자들로 구성된 디스어빌리티오케스트라가 찬조 출연해 이날 연주회를 빛냈다.

러브인뮤직은 2007년 5월, 인종화합을 목적으로 창립된 가주 정부 등록 비영리 음악봉사 단체다. 현재 LA와 가디나, 오렌지카운티 샌타애나의 키드웍스 등 3곳에서 61명이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고 74명의 어린이가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트럼펫 등을 배우고 있다.

(박준호 기자)



크리스찬 문인협회 출판기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최학량목사



종교칼럼리스트 강만원 선생 강연회에서 강만원 선생이 강연하고 있다

'교회란 무엇인가?' 주제 종교칼럼리스트 강만원 선생 강연회

종교칼럼리스트 강만원 선생 강연회가 2일 오후 6시 캘리포니아 인터내셔널대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회에서 강만원 선생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근본적 문제는 성경적인 것에서 이탈"이라 말했다.

강 선생은 "무더의 종교개혁 등으로 인해 성경이 평신도들에게 전해졌다. 종교개혁자들은 만민제사장론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열쇠가 주어졌다고 했지만 성경을 사용할 권한은 목사에게만 있다며 사제주의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회는 네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첫째, 교회는 성도다. 둘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셋째, 교회는 새생전이다. 넷째, 교회는 하나님나라의 담지자(전초기지, 씨앗)다"라며 "교회는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중의 핵심이며 교회 없이 구원 없다"고 강조했다.

강만원 선생은 "교회는 부름 받은 백성들이며 성도는 부름 받은 무리다.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다. 내 교회 나의 성도라면 그것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또한 교회의 머리는 예수라고 했다. 예수가 머리인 몸, 지체는 우리들이다. 지체는 자기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라고 하셨다. 돌로 지은 성전과 자신의 몸의 차이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다"라며 "내성도, 그리스도의 몸, 새생전 등은 하나님나라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강만원 선생은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은 신비다. 그러나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탄생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교회개혁을 외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교회개혁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 개혁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구태가 돼버린다. 따라서 개혁이 아닌 회복이 돼야 한다"고 말하며 "교회개혁은 계속되어야 하는 과정"이라 말했다.

그는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의 타락에 대해 이미 심판이 됐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회개의 영이 들어갈 틈이 없어졌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한편 4일 저녁 7시에 열린 둘째 날에는 '한국교회와 한인이민교회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포럼으로 열렸으며 김영철 장로(한인교회정화운동협의회 대표), 강만원 선생, 이상명 박사(미주중신대학교 총장), 장일 기자(미주중앙일보)가 패널로 참여했다.

(박준호 기자)

기성 새 총회장에 윤성원 목사 선출

제112년차 총회, 교단 사상 총회장 첫 직선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는 30일 경기도 부천 서울신대에서 개최한 '제112년차 총회' 둘째 날 회의에서 신임 총회장에 현 부총회장인 윤성원(서울 삼성제일교회) 목사를 선출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류정호(대전 백운교회)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에는 황재오(서울대신교회) 장로가 당선됐다.

총회장 직선선거에서 윤 신임 총회장은 김명철(서울 서대문교회) 목사와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당선됐다. 그는 대의원 790명이 참여한 1차 투표에서 509표를 얻어 승기를 잡았으나 3분의 2 득표에 실패해 2차 투표까지 이어졌다. 2차 투표에서는 712표 중 493표를 얻어 당선이 최종 확정됐다.

윤 총회장은 "기성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중심으로 한 전통 있는 교단"이라며 "교계 중재자 역할을 맡은 중령교단으로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에 기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교단의 대사회적 영향력 확대, 다음세대 부흥, 목회자 역량 강화 등 총회의 전반적 업그레이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총회 내 의견 갈등이 있지만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국내 북음화와 세계 선교에 크게 이바지하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의원들은 또 부서기에 이봉조(김포교회) 목사를, 부회계엔 임호창(인천 간석제일교회) 장로를 선출했다. 단독 후보가 임후보한 서기와 회계는 별도 투표 없이 조영래(보령 한내교회) 목사와 유승국(청주 미평교회) 장로가 각각 당선됐다.

앞서 오전 회의에서는 그간 총회 안팎에서 논란을 빚어왔던 지방회 분할 문제 관련 긴급 동의안이 통

과됐다. 총회 대의원은 '서울제일지방회와 부흥지방회 분할을 찬성한다'는 내용의 긴급동의안 표결 제안을 수락했고, 3분의 2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지난해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의사 정족수로 논란이 불거졌던 점을 고려해 재적 인원을 명확히 계수한 뒤 의결을 진행했다. 이로써 사회 법정 다름으로 변했던 서울중앙지방회와 서울제일지방회, 부천지방회와 부흥지방회간 '지방회 분할 논란'은 일단락됐다.

총회는 또 지난해 말 현재 전국 회원 교회 및 세례교인 수를 발표했다. 총회 기획예결산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회원 교회는 2846개, 세례교인은 30만509명, 전체 교인 수는 43만9240명으로 집계됐다. 직전 연도에 비해 교회는 30개 늘었고, 세례교인은 1919명 줄어든 수치다.

“오정현 목사 자격 문제 없다”

예장합동 동서울노회 위임결의 재확인 승인

위임목사 자격 논란을 겪고 있는 오정현(서울 사랑의교회) 목사에 대해 소속노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동서울노회(노회장 확대전 목사)가 '자격에 문제 없음'을 확인했다. 동서울노회는 "28일 열린 임시 노회에서 오 목사 위임결의 관련 내용을 재확인하고 참석한 노회원들의 전체 동의를 얻어 이를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러 최근 대법원이 오 목사의 위임 목사자격 관련 소송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법원이 총신대 신학대학원 입학과 졸업 문제를 삼아 예장합동 교단에서 다시 목사안수 받지 않은 것을 파기 환송 이유로 들었는데 이는 한번 안수 받은 목사는 타 교단으로 이적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안수 받지 않는다는 기독교

정통 신학과 교리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교단에서 목회하는 목사의 자격은 노회가 그 심사와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법원이 교단의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고 개별 목회자에 대한 자격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종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서울노회는 관련 내용을 총회에 현의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동성애 합법화’ 반대 공감…방법론선 온도차

6·13 지방선거운동 돌입…정당별 ‘기독교연인’ 입장 발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31일 본격 시작됨에 따라 각 정당들도 기독교 관련 정책을 내놓고 표심잡기에 나섰다.

주요 4개 정당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대표회장 소강석 목사)가 제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기독교 근대문화 특별위원회 구성, 자살·중독 예방정책, 대기환경 대책 등에 대해 "적극 추진하거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동성애 동성혼 문제와 반사회적 사이버 종교집단 대처방안, 낙태 문제에선 미묘한 차이점을 드러냈다(표 참조).

더불어민주당은 "동성애 동성혼의 법제화를 반대한다"면서 "다만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학생 인권을 내세우며 동성애와 동성혼을 보호하고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면서 "동성애 합법화 추진을 반대하며 학생들에게 그릇된 성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동성애 교육, 동성애 동성혼을 보호·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절대 반대한다"고 답했다.

바른미래당도 "성적지향을 포함하는 학생인권조례, 지자체 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자칫 동성애 인정 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보호·조장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한다"는 강경 입장을 보였다.

이단·사이비 종교단체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은 "한국이 정교분리 원칙을 헌법상 가치로 두고 있다"면서 "종교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된다"며 중립적 의사를 밝혔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사회적 사이버 집단에

“우간다가 이슬람 확산 막는 전초기지 되도록 합심 기도”

모든민족선교회, 소웨섬 마을잔치

아프리카 중동부 '빅토리아 호수'에 있는 우간다의 소웨섬에서 지난 1일 한바탕 잔치가 벌어졌다. 섬 주민 600여명이 모든민족선교회 관계자들을 위한 '마을잔치'를 연 것. 이 단체 관계자 10여명은 2013-2015년 소웨섬에 교회를 지어주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및 기숙사를 건설했다.

이들은 1시간여 통통배를 타고 이동했다. 도착 후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기도를 해주며 복음을 전했다. 섬의 주요 이동수단인 작은 배에 엔진이 없다는 주민들의 말을 듣고 선교회 측은 바로 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후변화로 호수의 깊이는 갈수록 얕아지고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주민들은 특별한 손님을 위해 닭고기, 생선 등 영양 많은 음식을 준비했다. 교회학교 어린이들의 흥겨운 찬양과 춤이 잔치 분위기를 한껏 달궜다.

모든민족선교회 이사장 정성진(거룩한빛광성교회) 목사는 아이들의 찬양춤씨가 최고였다고 엄지손

가락을 치켜세웠다. 주민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간다의 미래를 이끌 아이들을 잘 교육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다음 방문 때는 이 섬이 천국처럼 평화롭게, 특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독교인 유지원과 초등학교 교사 및 기숙사를 건설했다.

마을잔치를 준비한 세무웹바 아이작(33) 뉴리바이벌교회 전도사는 11년째 이곳에서 사역하고 있다. 이전 교역자들은 부임 후 얼마 못 가 섬을 떠났다. 섬이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사역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아이작 전도사는 "한국교회가 섬의 복지를 위해 힘써줘 감사하다"며 "특히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이 나라의 인재로 성장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기쁘다"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선교회에서 서기를 맡고 있는 서성환(고양 송포교회) 목사는 "우간다의 북음화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을 쏟고 있다"며 "우간다는 아프리카에서 이슬람교의 남침을 막는 중요한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무열 우간다 선교사는 "우간다는 전통적으로 기독교인이 많지만 우상숭배도 심한 편"이라며 "최근엔 기독교를 방자한 이단·사이비 단체들이 판치고 있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민족선교회는 1990년 8월고 이중일(원돌교회) 원로목사가 설립했다. 이사진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 교단 목회자 34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내 대표적인 양대 교단이 연합해 모범적인 사역을 펼치는 선교회단체로 유명하다. 지금까지 우간다에 12개정, 케냐에 1개정을 선교사로 파견했다.

특히 선교회는 1993년 1월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 인근 브웨렝가 66만㎡ 부지에 신학교(ANTS)를 세워 교역자 400여명을 양성했다. 종합대학을 지향하는 ANTS는 지난해 2월 우간다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았다. 졸업생들은 우간다는 물론 르완다 탄자니아 콩고 케냐 수단 등에서 교회와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세워 미래의 크리스천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 쏟고 있다.

문화목회 모델로 ‘새참음악회’ 제시

총회문화법인, 예능교회서 간담회 열고 음악회 시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문화법인(이사장 조건희 서울 예능교회 목사)이 4일 문화목회의 모델로 '새참음악회'를 제시했다. 새참음악회는 교회와 정기적·장기적으로 교회 카페에서 진행할 수 있는 콘서트다. 법인은 예능교회 카페 '블레싱'에서

문화목회간담회 '허브'를 열고 'Fun-뽀뽀 클래식'이란 주제로 만든 새참음악회를 시연했다. 음악회는 어느 교회가 쉽게 열수 있도록 간소했다. 출연자가 사회자와 연주자 둘 뿐이었고 특별한 무대시설은 없었다. 카페 한쪽 빈 공간을 무대로 둘러싸 만들었다.

김지선 CTS 전 아나운서가 사회를 보고 독일 바이마르 국립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한 여근하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했다. 엘가의 사랑의 인사, 무반주소나타 등을 한국적 끝내줄 음악이야기를 하고 다시 다 음곡을 이어갔다. '교과서 밖으로 나온 서양음악사'란 타이틀로 음악의 기원과 요한 세바스찬 바흐, 낭만주의 음악, 현대음악 등을 재미있게 들려줬다.

반응은 뜨거웠다. 문화목회에 관심 있는 이들 40여명이 전국에서

한 그리스도인의 선교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한국교회가 화해와 평화, 용서를 선포하는 일에 적극 나서실 때 한반도 북음통일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주도홍 백석대 부총장은 "한국교회와 남남갈등"이란 주제로 강연하면서 "남남갈등 극복은 분명한 통일준비"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 후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사회에 바른 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한국교회"라며 "교회는 원수까지 품을 수 있는 사랑을 가르치므로 성령이 함께한다면 남한 그리스도인은 이념도 복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피스 메이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선교통일한국협약체'를 발표했다. 통일선교를 위한 방향성과 비전을 한국교회와 공유하고, 종합적인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연합체다.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 '코나통일포럼'에서 나온 구상이 열매를 맺은 것이다. 1일까지 이어지는 콘퍼런스에선 허문영 평화한국 대표, 양영식 전 통일부 차관 등도 참여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모들의 기독교학교 및 기독교 교육에 대한 입장을 분석해 교계 및 한국교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이철신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장은 "기독교학교는 역사적으로 국가 발전의 화수분 역할을 감당했다"면서 "현재 기독교학교에 다양한 어려움이 있지만 온전한 기독교 교육을 통해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는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상진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장은 "이번 교육감 선거를 통해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의지가 교육현장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목사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능력 위에 덧붙여져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다"면서 "그 누구도 우리에게 위로를 될 수 없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새에덴교회에서는 성경책과 십자가 목걸이, 신앙서적, 생필품, 간식 등 위문품을 준비했다. 또 세례 받는 이들을 축복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피자를 구울 수 있는 푸드트럭을 투입해 훈련병들에게 피자 1500여판을 대접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민는다"며 "기도회 기간 중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 것을 믿고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하자"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성공 기원과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포식'이 열렸다. (새한반도녹색평화운동협의회(KGPM)와 (새평화와통일을 위한연대(평통연대) 등 4개 단체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고계 지도자와 기독교회의원이 참석해 북·미 정상회담 성공과 평화통일을 위

‘선교통일한국콘퍼런스 2018’ 논의 시작

북한사역목회자협 등 6개 단체, 선교통일한국협의체 발족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통일선교 전문가들이 모여 하나의 협의체를 발족하고 한국교회의 통일선교 방향과 전략을 모색했다.

선교통일한국콘퍼런스 준비위원회(공동대표 조오섭 목사·벤 토레이 신부)는 31일 경기도 성남 JS호텔분당에서 '선교통일한국콘퍼런스 2018'을 개최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북한사역목회자협의회(북사목), 북한기독교총연합회(북기총), 국제사랑의봉사단 등 6개 단체가 함께 준비한 행사엔 국내 통일선교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했다.

'정상회담 개최 등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통일선교 비전'을 주제로 열린 콘퍼런스에서는 한반도 정세 및 통일선교전략 관련 강연, '정치·역사·사회·문화' '영성·기도' '북한선교' 등 분과별 토의가 이어졌다.

김병로(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교수는 '평화환경과 통일선교'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평화협정 실행을 위해 치열한 논의와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며 "평화를 위한 과정이 순조롭진 않겠지만 이 땅에 평화가 완전히 정착될 때 비로소 통일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반도 평화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평화 유지(peace keeping)' '평화 조성(peace making)' '평화 구축(peace building)'이란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며 "한국교회는 정부가 군사력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데만 몰두하지 않고 관계 개선 및 교류 협력으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북한 주민 화해 도모' '북한 소외이웃을 향한 조건 없는 지원' '북한 공인교회 및 지하교회, 그 루터기 성도를 향한 관심' 등을 남

기독교학교 정상화 위한 12가지 정책

교육감 후보에게 질의...교계, 12일까지 진행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철신 목사·사진 왼쪽)와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 박상진 교수·오른쪽)는 6·13 전국교육감 선거·오른쪽)는 6·13 전국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해 '2018 교육감 선거 후보 정책 질의'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기독교학교는 평준화 제도로 인해 사학의 자율성이 제한되면서 건학이념에 따라 기독교 교육을 실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평준화

제도는 부모의 학교 선택권과 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제 배정된 학생의 종교 자유와 종교계 사학의 종교교육의 자유가 충돌하면서 기독교학교 내 종교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추최 측은 기독교학교의 현황과 개선을 위한 12가지 정책 질문 항목을 만들어 전국 교육감 후보에게 질의할 예정이다. 후보 정책 질의는 31일부터 교육감 선거 직전일인 오는 12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각 후

논산 훈련병 5000명에 진중세례

기독교군선교연합회 세례식 새에덴교회 후원으로

(새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이사장 박선희 목사는 지난 2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김택조 목사)에서 제527차 진중세례식을 개최했다.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의 후원으로 진행된 세례식에서 훈련병 5000여명이 세례를 받았다.

소강석 목사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죄와 죽음을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

도밖에 없다"며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다면 아름다운 인생에 가까워지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통상적으로 후일 교회 목회자가 설교자로 나서는 것과 달리 이날 세례식엔 군복 출신인 정명호(서울 해성교회) 목사가 등단했다. 소 목사가 젊은 세대인 훈련병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소통하는 정 목사에 게 특별히 요청한 것이다.

통일 위한 기도소리가 커진다

21일간 전국 순회 제12회 세이레평화기도회 개막

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낡은 상가건물 3층의 좋은소식선교교회(신인식 목사) 예배당. 교회 간판도 없는 이곳에 시각장애인들과 성경책을 손에 든 이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새평화한국(대표 허문영)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만 주제로 개최한 '제12회 세이레평화기도회' 첫 기도회에 참석키 위해서

였다. 기도회는 이날부터 21일간 전국 23개 교회를 순회하며 열린다. 시각장애인 성도와 교회 관계자 20여명은 평화통일과 남북한 시각장애인의 북음화를 놓고 기도했다. 인사말을 전한 허문영 대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간구를 듣고 모두 이뤄줄 것으로

교토소 선교칼럼 (44)

이영희 목사
교토소 교목, TPPM대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이 교토소 문서선교 책을 쓰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기적적으로 채워주시는 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2005년에 변화 프로젝트 교토소 문서선교 비영리 단체를 설립한 이후 현재까지 영 어책은 38권, 그것에서 번역된 책 들은 한국어 26권, 스페인어로 6 권, 이란어로 8권, 인도어로 3권, 베트남어로 4권입니다. 그런데 이 렇게 많은 책들이 출판, 배포가 되 고 있는 이유는 재소자들의 영혼 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또 문서선교에 관 심이 있으신 여러분들이 기도와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와 후원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서선교를 통해서 많

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이 란어로 8권, 영어로 2권, 한국어로 1권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 지 많은 좋은 일들이 있지만 여기 에 어떻게 2권의 책이 출판되었는 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쓴 책 "내적 치유를 위한 지침서(A Guide to Inner Healing)"란 책은 하나님께서 인 도하지 않으셨다면 출판되지 않았 을 것입니다. 2018년 3월 16일에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두 명 의 젊은 여성 사역자들이 교토소 채플러인 되었는데 두 사람 다 교 토소 사역에 전혀 경험이 없었습 니다. 그 중 한 사역자는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교 토소 사역에 경험이 충분치 않은 초보 사역자가 어떻게 재소자들을 도와야 할지 가르쳐주는 책이 있

느냐고 물었습니다. 저의 대답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나는 1999년부터 교토소 사역을 했으므로 거의 20년간의 사역을 했고 여러 가지 책을 썼지만 교토 소 선교 경험이 없는 목사들을 위 해서 쓴 책은 한권도 없었기 때문 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제가 처음 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하신 말씀 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적치 유와 영적성장에 대한 책을 쓰게 하시고 또 수련회를 인도하도록 여 러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실현하는 데는 제가 영적 방패가 많아서 그런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제가 여러 면에 서 영적인 방패로 해야 할 일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을 꿈을 통해 여러 번 알려주셨습니다. 이 꿈도 그 중 의 하나였습니다. 이미 두 명의 사 역자가 사역을 시작하려는데 재소 자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지침서를 준비해 놓지 못했다는 것은 꿈에서도 나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 하나님께 그 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 는 지 여쭙 보았습니다.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 적 지도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많 은 자료를 주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책을 쓰라."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니 그 동안 주님께서 주신 자료들이 많 아서 책들이 출판될 때마다 그 내 용들을 여러 책들에 부분적으로 실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묶어서 사역자들을 위한 한 권의 지침서로 출판을 하면 많은 사역자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토 소는 영적 응급실과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깊은 상처와 아픔에 시달립니다. 때로는 영적인 수술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재소자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지 알려주시고 그 러한 경험을 토대로 기도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아담스 카운티 교토소에서는 성 령님의 역사로 인해 많은 재소자 들이 영적 부흥과 치유를 체험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돕도록 하셨는지를 여러 책에 있는 자료를 모아 엮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교토소에서 사 역을 하지 않았다면 영적인 고통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 람들을 돕기 위한 자료를 만들 수 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감방 안 에서 기도 모임과 상담, 그리고 예 배를 인도하면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배운 것을 사용한 자료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에게 사역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묶으라고 인도해주신 성령님께 감 사를 드립니다. 이 책은 목사들과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넓게는 개인의 영적 부흥과 내적 치유를 위해서 쓰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책을 주님께서 쓰라고 하셔서 시작을 한다고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알려 지 한사람이 그 책을 출판하는 데 얼마나 예산을 생각하고 있느냐고 이메일로 질문했습니다. 그 당시 책이 시작하는 과정이라 몇 페이 지가 될 줄도 몰랐고 또 하나님께 서 몇 권을 출판하라고 말씀을 하 지 않았으므로 기다려보아 한다고 했습니다. 책이 거의 끝날 때쯤 주 님께서 2000권을 출판하라는 마음

을 주셔서 알아보니 "내적 치유를 위한 지침서"는 5000달러 정도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동시에 재소자들의 놀라운 영적 부흥에 대한 한국 책 "승리의 행진 2편"과 또 한 한국분 이 번역해주신 성령에 대한 책 "숨겨진 보배"를 두 권을 엮어서 "선 교의 꽃 10편, 교토소 영적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출판준비가 되었 습니다. 주님께서 그 한국 책을 한 국에서 재소자들을 위해서 출판하 라고 하셔서 2,000권을 출판하는 데 4200달러가 필요하다고 했습 니다. 주님께서 모든 헌금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에 선교 헌금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느냐고 여쭙어보신 한 분이 이 두 권을 출판하는 비용 전 체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두 책이 출판이 되어서 한국과 미국 에서 재소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재소자들을 사랑하시고 항상 기 도해주시는 분들과 이 문서선교의 책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책 번역 을 도와주시는 분들, 수정을 하시 는 분들, 그리고 선교 헌금으로 후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 드립니다. 이 문서선교를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yonghui.mcdonald@gmail.com



IEA 제 58차 목사안수식을 마치고 안수자 및 협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드웨스트대학교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교수 학생들이 기념촬영 했다.

IEA 목사후보자교육 및 제58차 목사안수식

IEA(국제복음주의협회) 목사후 보자 교육과 제58차 목사안수식이 5월 21-24일 IEA본부(세인트루이스)에서 실시됐다. 이번엔 목사안수를 받은 8명은 미드웨스트대학교 출신을 비롯해 여러 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하고 현 재 태국, 멕시코, 한국, 미국 선교사 역과 교회에서 전인사역을 하는 이 들로서 IEA를 통하여 목사고시를 치르고 특별교육을 거쳐 목사안수 를 받은 것이다. IEA에서는 교파를 초월해 전문 분야에서 사역하는 남, 여를 위해 목사안수 길을 열어놓고 있다. IEA는 세계지도자 양성을 통한 세계선교를 위해 지난 1983년도에 창설(설립자 제임스송 박사) 되었고 1986년도에는 미드웨스트대학

교를 설립해 세계 지도자를 양성 하고 있으며, IEA 산하에 세계크리스천스쿨네트워크(WCSN), 글로벌 리더십연구원(GLI), 국제교육협력기 구(IEC), 글로벌게이트웨이대학교(GGU) 등 많은 기관이 있으며, 세 계 전락지에 인재양성 기관을 세 워나가고 있다. 뜻을 같이하는 교회, 기관, 학교, 개인들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목사안수에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www.ieawm.org)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636)639-9221, 070-8690-2662, 이메일: info@ieawm.org (기사제공: IEA)

개교 32주년 미드웨스트대학교 기념행사 및 학위수여식 거행

올해로 개교 32주년을 맞이한 미드웨스트대학교(Midwest University, 설립자/총장 제임스송 박사)는 지난 5월 21일부터 24일 까지 세인트루이스 본교에서 다양 한 행사를 진행했다. 21일부터 23일까지는 집중세미나(특강)가 열렸으며, 24일 오전 9 시30분부터는 글로벌 리더십 포럼(Global Leadership Forum), 오후 3시에는 학위수여식이 진행됐다. 24일 오전에 진행된 GLF 주 강사는 SIM USA의 Bruce R. Johnson 총재, 한국의 한울고등학교 교장 박우승 박사가 맡았다. 교무처장 이희철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2018년 학위수여식은 총동 장회장 박동호 박사의 기도, 이사장 William F. Shusake 미주리주 하원의원의 메시지, 총장 제임스송

박사의 격려사, 그리고 Nick Guccione 웬즈빌 시장의 축사, 본 교 이사 Dr. Stephen Combs의 축 도로 마무리됐다. 이번 졸업식을 통해서 41명의 학사, 석사, 박사 학위자가 배출됐 으며 특별히 Bruce R. Johnson(President of SIM) 총재, Esther Choi(Principal American International School, Beijing, China) 교장이 각 분야의 뛰어난 활동과 사회적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SIM USA INC와 미 드웨스트대학교가 MOU를 체결했 다. ▲연락처: (636)327-4645, usa@midwest.edu, www.midwest.edu (기사제공: 미드웨스트대학교)

2018 북미원주민 선교훈련 시작 배서현 선교사 임명... "바나바처럼 행하라"

뉴욕교협(회장 이만호 목사) 산 하 북미원주민선교회(NAMA, Native American Mission Association, 회장 이재봉 목사)가 2018년 단기선교를 앞두고 지난 3 일부터 훈련에 들어갔다. 2006년부터 매년 북미원주민을 위한 여름 단기선교를 해오는 북미 원주민선교회는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일정이 잡혀 있다. 훈련은 6주 동안 매 주일 저녁 뉴욕 선한목자교회(담임 박준열 목 사)에서 진행된다. 3일 오후 6시 훈련에 앞서 드린 예배는 박준열 목사 인도로, 기도 김기호 목사, 설교 이만호 목사, 축 도 최예식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 다. 이날 배서현 목사를 선교사로 임명하고 파송 안수기도 하는 시간 도 가졌다. 이만호 목사는 사도행전 11장 24-26절을 본문으로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바나바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처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 선교지를 향하 라"고 말했다.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은 없지만 안타까워하시는 사람들은 많다. 본문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 람이라고 했다. 착한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여기 모인 분들에게 착한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자신이 잘못 길을 걷고 있음을 깊이 회개 한 자들은 안 할 수 없기 때 문이다.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모 두가 바나바가 가는 길을 걷게 되 길 축원한다"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서 북미원주민선교회 회장 이재봉 목사는 배서현 목사에게 선 교사 임명장을 수여했다. 배서현 선교사는 인사말에서 "선 교지를 향하는 길은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길은 나뉘 어져 있지만 어떤 길을 택하든 반드시 건너야 하는 각오로 임하겠 다"며 "10년 전 한국에 온 선교사 들을 기억하며 그들처럼 나도 든든 한 다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북미원주민 단기선교는 지난해 24개 교회 110여명이 미네소타 4 개 지역, 위스콘신 3개 지역 등 7개 북미원주민 지역에 선교(복음 사역, 문화 사역, 음식 사역, VBS, 스포츠)했다. 참가비는 450달러이며, 자세한 문의는 김기호 목사(646-763-4211), 합성은 목사(917-608-1075)에게 하면 된다. (정리: 유원정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성경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주일학교: 오전 9:30, 11:30 www.thanksa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8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E.M. Youth 예배: 오전 11:30(영성) 금요성경회: 오후 7: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주일학교: 오전 9:30, 11:30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30(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오전 11:30 주일 학교: 오전 10:00 금요성경회: 오전 5:30(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정협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00(영성) 주일 학교: 오전 10:00 금요성경회: 오전 5:30 토요일성경회: 오전 9:30 토요일학교: 오전 6:00 Tel: (626)691-0691, (F) (626)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 김현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성경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scsa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E.M. Youth 예배: 오전 11:20 금요성경회: 오후 7:30 영양예배: 오전 7:00 성경연구회: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중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 저녁 7:30 Tel: (714)719-2244, Fax: (714)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c.org	디아스포라교회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우리의 동행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수요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송부)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HB L.A., CA 90033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예배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M. Youth: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요일성경기도회: 오후 7:30 www.mpci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lin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성) 주일 학교: 오후 2:00(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학교: 오전 6:00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회: 오후 7:00 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생애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E-mail: belthe@bkc.org 18700 Harvard Ave., FA, Irvine, CA 92612 www.bkc.org	LA 복음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 이영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아동부/청소년부: 오전 11:00 청년부 성경부: 오후 1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성경회: 오후 7:00 성경연구회: 오전 10:00 새벽기도회: 목요일 6:00 Tel: (323)641-0691 / ys2104@hotmail.com / www.lagumc.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수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St., La Habra, CA 90631	세계사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성경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EH), 사역(818)893-88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웨스턴선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저녁 7:30 금 요 예 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얼버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주일 학교: 오전 6:00(토) 수요일성경기도회: 오후 7:3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일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성) 주일 학교: 오후 2:00(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학교: 오전 6:00 Tel: (213)384-27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예배: 오전 11:30(월-토) www.gracemc.com Tel: (714)446-626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영성)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 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cj.org	중은마음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rg / e-mail: pastor@laccornestone.com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주일 4부예배: 오후 5:30(월-토) www.conerstonev.com / e-mail: pastor@laccorne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9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2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주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5:00(청년)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8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KWMA 2018년 세계선교대회

중남미선교 정보 및 미래선교 전략적 방향(2)



강성철 선교사 (브라질 GMS신학대학 학장)

3) 중남미에 사는 인종 선교적 관점에서의 중남미 지역이라 함은 중미를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 24개국과 카리비안 해안국가 22개국을 합한 46개국을 말한다. Operation World의 2005년 통계에 의하면 중남미 전역의 인구는 519,131,119명으로 나타나 있다. 인종은 크게 다섯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Euro-American(이민은 유럽인)은 가장 많은 45.5%를 차지하고 있다. △Mixed race는 39.1%를 차지하는

이들 중에서 신규약 성경 전체가 번역이 된 언어는 25개 언어이며 신약만 번역이 된 언어는 254개 언어가 되며 성경 단권(일부분)이 번역된 언어는 200개 언어가 되며 번역 중에 있는 언어는 249개에 이르고 있다

5) 종교 분포 중남미 지역의 종교 분포를 보면 기독교(Christianity)의 인구는 91.7%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 개신교(Protestant 혹은 Evangelical)은 10.6%를 차지한다. 전체 카톨릭 신자

를 들여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그 어느 지역보다 많다. 또한 발굴하고 꿈과 비전을 나누며 양육 훈련하여 선교사로 파송할 MK, PK들이 있고 세계각처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는 현지인 리더들을 그리스도의 제자삼아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유럽과 이슬람권을 비롯한 세계각처에 선교사로 파송하기에 너무 적합한 지역이다. 그러므로 중남미지역은 지금도 여전히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선교지이다

2) 중남미 지역선교의 현안 한국교회와 선교단체는 더 이상 선교지가 아니라는 중남미지역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아도 거리가 멀고 경비가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사역현장을 들여다 보기가 쉽지 않아 여러 가지 구실로 중남미지역 선교사 파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KWMA를 중심으로 각 교단 선교부, 각 선교단체 및 선교지도자들이 의식을 가지고 중남미지역이 선교지임을 분명히 말해주어야 할 뿐 아니라 선교전략과 정책이 바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이 아직도 많은 가능성이 있는 중남미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펼쳐갈 사역을 개발하여 복음증거를 위한 구제와 봉사 차원의 선교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평신도 시니어 선교사들이 중남미지역을 진출할 수 있는 미래 선교전략을 세워 많은 기업과 기업가들을 유치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고 정책적으로 선교사역을 펼쳐갈 수 있도록 구상하기를 제안한다.

5) 정기적인 전략모임을 갖고 지방학을 연구할 수 있도록 중남미지역 선교전략대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주기 바란다.

중남미지역 선교전략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전략모임을 갖고 지방학을 연구하며 선교전략 정보수집과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특별히 비즈니스와 디아스포라 융합이 이루어지도록 경제적 지원과 인력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

나가는 말

중남미지역 선교는 중남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종족과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각 나라에서 이민과 정착하여 이곳에 살고 있는 리더들을 발굴하고 양육하고 잘 훈련하여 선교사로 파송하며 무너져 내려간 유럽을 비롯하여 이슬람권 지역인 중동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복음을 역수출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기지가 될 수 있는 곳이 중남미이다.

그 예로 현재 브라질GMS신학교는 앙골라에서 온 학생들을 훈련하여 목회자로 세워 앙골라로 파송하고 있다. 얼마 안 있으면 노회를 설립하게 되고 GMS신학교 분교를 세울 분위기가 잡혀 가고 있으며, 또한 앙골라 국가 구역에 있는 콩고지도자들이 분교설립 신청하러 브라질에 왔다 간적이 있다.

GP선교회도 현지인을 훈련하여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다. 바라기는 이번 2018년 KWMA세계선교대회가 중남미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한국교회 선교지도자와 담임목회자들을 비롯한 조국교회와 미국교회교회가 중남미지역에 대한 인식을 바꾸길 바란다.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 속에 선교하기가 힘든 중남미지역 선교에 대한 시급성을 느끼고 적극적인 전략과 정책이 실시되기를 기대한다. 중남미지역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선교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를 소원해 본다.

(끝) kangsungchuel@gmail.com

이민자 중 리더 발굴, 양육, 훈련해 선교사로 파송 비즈니스선교와 디아스포라 융합 자비량 선교전략

데 중남미 전역의 9개 나라의 경우가 해당된다.

△Mestizo는 남미지역과 Lanino 중미지역에 해당되는데 유럽(European)인과 AmerIndian과의 혼혈에 해당된다. 또한 Mulatto는 유럽인(European)과 African 원주민과의 혼혈에 해당된다.

△Amerindian은 10.2%로서 중남미 전역에 사는 원주민 인디언을 말한다. 이들은 정복자들의 침략으로 영토를 빼앗기고 노동력을 착취되며 면역력이 약해 그들로 인하여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Afro American은 9.1%가 된다. 아프리카에서 중남미 전역으로 노예로 팔려온 아프리카 후손들이다. 카리브 해안 국가의 대부분의 인종이 이에 해당되며 브라질에 다수가 포함된다.

△Asian은 1.1%로서 동남 아시아 인들과 인도네시아인들은 19세기 그들의 영주국인 영국과 네덜란드 속국인 중남미지역에 주로 정착했으며 20세기에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들은 주로 자발적인 이민자들이 중남미 지역에 정착하였다. 이들 아시아인 다수를 이룬 곳이 Surinam, Trinidad 등을 들 수 있다.

4) 종족과 언어 종족과 언어의 분포를 보면 중남미 46개국 전 지역에 1,509개의 종족으로 이루어진 약5억2천만명이 살고 있으며 사용하는 언어가 1,183개이고

는 전체인구 중의 약80-85%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 nominal 카톨릭 신자가 50-60%이상 차지한다. 이 부분은 중남미 선교의 중요성을 논함에 좋은 근거가 된다.

회교는 전체 인구의 0.34%로 약 140만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불교는 0.16%로 약 2,3000명, 힌두교는 0.13%로 약 89,4000명, 유대교는 0.20%로 약10만명을 차지하고 있다.

2. 중남미 미래선교 전략적 방향

1) 중남미지역은 지금도 선교지이다.

선교는 마태복음 28장19-20절 예수님의 지상명령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 복음전파와 가르치고 지키도록 교육하는 일과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선교사역이다.

중남미지역은 라틴아메리카 24개국과 카리비안 해안국가 22개국을 합한 46개 나라가 있으며 1,509종족으로 이루어진 약5억2천만명이 살고 있으며 사용하는 언어가 1,183개나 되는 지역이다. 이 가운데는 한 번도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있는가 하면 태어나서 한 번도 복음

로 실시되도록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이것은 4차 혁명에 주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디아스포라 선교이다.

3) 차세대 리더의 발굴과 양육 및 파송이 필요한 지역이다

더 이상 선교사들이 파송되지 않아 시니어 선교사들의 바톤을 이어갈 사람이 없어(아마존 박동실 선교사, 폴 타레자 이원길 선교사, 브라질 이홍우 선교사, 파라과이 정금태 선교사, 알렌틴 정현식 선교사 등)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선교사가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많고, 1,509종족 중 아직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족속들에게 손을 펼칠 수 없는 실정이다.

그 대안으로 부모 따라 중남미 정착하여 이 지역에서 교육을 받아 언어와 문화를 익힌 MK, P들을 비롯한 2세, 3세 젊은이들에게 선교적 도전을 주어 선교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중남미지역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미국교회교회가 중남미지역의 차세대 리더발굴과 훈련을 위한 과감한 선교투자 전략을 세울 것을 제안한다.

4) 비즈니스선교와 디아스포라의 융합한 자비량 선교전략

경비가 많이 들고 거리가 멀어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없는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으로 비즈니스와 디아스포라를 융합하여 자비량 선교할 수 있는 대책을 연구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4색 다문화 그리고 어우러짐...

주예수교회 제 11회 다문화 음악축제

리치몬드 주예수교회(담임 배현찬 목사)가 주최한 다문화 음악축제(Intercultural Music Festival)가 지난 20일 지역주민들과 함께 열렸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음악축제에는 지역사회의 흑인교회, 백인교회, 히스패닉교회, 그리고 아시아인교회에서 4개 성가대와 찬양팀이 한 자리에 어우러져 각 인종 고유의 문화가 물씬 배어 있는 찬양을 통해 하나가 되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을 보냈다.

이희희 집사(주예수교회)와 Tonya Johnson 장로(Easterminster Church)의 재치 있는 사회로 문을 연 다문화 음악축제는 배현찬 목사의 따뜻한 환영사에 이어 Shady Clark Jr. 목사(Eastminster Presbyterian Church)의 기도로 무대의 불을 밝혔다.

첫 무대에 오른 이스트민스터장로교회(Eastminster Presbyterian Church) 성가대는 흑인 특유의 영감있는 찬양으로 회중의 어깨를 들썩이게 하고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두 번째 무대는 히스패닉 순복음교회(Living Water Pentecostal Church)의 젊은 찬양팀이 남미 특유의 열정적이고 격렬한 찬양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드높였다.

이어서 세 번째 무대는 사우스민스터장로교회(Southminster Presbyterian Church) 성가대의 잔잔한 호수와 같은 아카펠라가 회중의 심령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물들였다. 이윽고 한복으로 골계 차려 입은 주예수교회(Lord Jesus Korean Church) 성가대는 한국 전통 가락의 노래와 우리말 찬양으로 한국인의 흥과 깊은 정서를 물씬 풍겨냈다.

이렇게 어우러진 다인종 다문화는 이 음악축제의 백미인 마지막 무대에서 참석한 각 교회의 모든 성가대와 찬양팀이 한 무대에 올라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You Raise Me Up"을 부르며 주 안에서 하나 된 서로를 확인했다.

이어서 Caitlin Deyerle 목사(Southminster Presbyterian Church)의 축도로 대안원의 막을 내렸다.

2부 순서로 진행된 저녁식사는 주예수교회 성도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아름답고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다.

행사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Caitlin Deyerle 목사는 "이번 찬양을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고, 오늘 서로 다른 음악 스타일 속에서 같이 노래한 사실이 너무 좋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Peter 형제(Living Water Pentecostal Church)는, "이런 이벤트를 찾아보기 힘든데 이런 환경과 상황이 너무 좋고 기쁘다.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Tonya Johnson 장로도 "11년 동안 이 축제에 참여해왔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감격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로서 주예수교회는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소통하고 이웃을 섬김으로써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주예수교회)



주예수교회 제11회 다문화 음악축제를 마치고 참여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Large advertisement for '해외교회' (Overseas Church) featuring a banner with the text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교회' and a grid of 12 church listings with their respective pastors and service times.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57)

8.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교회의 교육을 위한 성경적 통합 교육 이야기 (17)
(Biblical Integration and Education in the Korean American Church)

정 신 애 박사
(사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지금까지 우리는 한인 교회교육을 위한 “성경적 통합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왔습니다. 먼저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성경적 통합교육”의 정의, 목표 및 근간적 의미, 그리고 그 확장적 개념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토대로, 한인 교회교육에서 실질적으로 “성경적 통합교육”을 실천하는 이슈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해 온 교회교육의 교육의 목적 및 목표, 내용, 방법, 교육자와 피교육자, 교육의 장 등 여러 카테고리에서 살펴볼 때, “성경적 통합교육”의 가장 큰 전제인 “성경을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일(즉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축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여 가르치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가정간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교육적 환경은 어떠한 야만 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성경적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어떠한 교육적 상호작용과 환경이 그 바람직한 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성경적 통합 교육을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바람직한 교육의 장의 모습은 첫째로, 일치된 신앙교육의 내용 및 동일한 가치관을 제공하는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이 상이하거나, 교회에서 심어주어 가는 가치관과 가정에서 강조하는 가치관이 상치된다면, 우리 자녀들의 신

진심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들의 예배시간에 방해 받지 않기 위해 그 시간 동안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몇 시간 자녀들을 맡기는 것으로 (심하면 베이비 시팅 정도)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서로의 교육이 우리 자녀들에게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하며, 따라서 양자 모두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임하되, 서로를 격려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서로를 등한시하거나 혹은 무의식적으로라도 무시하거나 한다면, 이는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될 것이며, 그리 되면 결국 양자 모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실질적으로 상호간 긴밀한 협의의 체제를 구성하고 협의된 사항들을 반드시 실행하는 모습입니다. 각 교회와

교회-가정: 일치된 신앙교육의 내용 및 동일한 가치관 제공 서로 격려하고 신뢰하며 신앙교육 핵심주체 인정

특히 지난 두 이야기들에서는 우리 이야기에서의 교육의 장이란 교회(전체 교회, 교육부, 각각의 부서들)와 가정의 교육적 환경 및 그들 간의 상호작용들이 만들어내는 교육적 환경이라고 설명하였으며, “교육의 장(환경)으로서의 교회”와 “교육의 장(환경)으로서의 가정”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전체 이야기의 결론으로서, 각각 살펴본 두 교육의 장들 간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교육적 환경에 대해 살펴보고, 한인교회를 위한 성경적 통합교육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교육의 장(환경)으로서의 교회”와 “교육의 장(환경)으로서의 가정” 간의 상호작용들이 만들어 내는 교육적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이 전체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이 우리 다음세대들을 위한 성경적 통합교육의 마지막 퍼즐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즉 결국 우리 자녀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교육이란 바로 교회와 가정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장(환경)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는 교육의 실체는 교육의 장(환경)에서 경험하는 바로 그것이기요. 교육 목적 및 목표가 세워지고, 내용이 생산되고, 방법이 결정되고 난 후, 교육자 혹은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교육적 행위로 바로 교육의 장(환경)에서 실제적으로 구현된다는 것입니다(교회라는 장과 가정이라는 장에서는 각각 따로 구현 되었던 교육들이 양자의 상호작용으로 생성된 교육의 장에서 비로소 완전성 있게 구현됩니다.).

양발달은 엉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매우 혼란스러워 할 뿐만 아니라, 양자 어느 쪽도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 버릴 것이지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의 성경적 통합성은 고사하고 단편적인 신앙 형성조차 어렵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심령이 완전히 빈 상태가 될 지도 모릅니다. 특히나 우리 한인자녀들은 학교에서의 문화가치와 가정에서의 문화가치간의 차이로 이미 충분한 혼란을 겪어왔기에 더욱더 교회와 가정이 함께 확고하고 단단하게 동일한 내용과 가치관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고 인생의 모든 혼란을 평정하고 주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교육의 장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와 가정이 상호간 격려하고 신뢰하며, 상호간을 신앙 교육의 핵심 주체로서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피상적으로 서로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바람직한 교육의 장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정을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고, 가정들이 적극적으로 자녀들의 기독교 교육에 참여하고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기민하게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교육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정은 그저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기초적인 교육기관이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정 또한 교회를 교육의 핵심주체로 인정하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 상황이 다양할 수 있으나 이는 반드시 교회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라 봅니다. 교회와 가정이 한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심점 역할을 교회에서 감당하여서, 해당하는 모든 가정들과 교회가 다양한 협의들을 일구고 협조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의된 것들은 성의를 가지고 실행하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 된다면 다양하면서도 일사분란하게 진행되는 교육적 계획들과 프로그램들을 우리 자녀들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잘 정돈된 양질의 교육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와 가정, 양자 간의 관계가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 통합교육을 행하기에 바람직한 교육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나아가갈 때, 우리 한인교회의 성경적 통합교육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우리 모든 헌신된 사역자들과 교육자들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성경을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즉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축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우리 자녀들의 지성, 감성, 영성, 덕성을 전인적으로 교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끝〉
sinaichung@yahoo.com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매일가정예배

월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왕상1:5-10)

다윗왕이 늙고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 다윗의 넷째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과 대제사장 사독과 군대장군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을 빼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람이 욕심이 임태하면 망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에 아도니아 뿐 아니라 욕심을 부리다가 함께 망하는 요압과 아비아달이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장관으로써 많은 공을 세운 인물이지만 다윗과 나

단 선지자 밑에서 경건하고 온유하게 자란 솔로몬보다는 아도니아에게 가담하는 것이 자신의 세력을 더욱 확보하기가 수월하겠다는 욕심에 쿠데타에 가담하게 됩니다. 또한 아비아달은 단독으로 대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정 오늘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더욱 겸손하게 살아야겠습니다.

화 한 번도 저를 섬섬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왕상1:6-7)

아도니아의 반역을 통해 생각해볼 것은 자녀를 신앙으로 잘 가르쳐야 한다는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아도니아는 정말 똑똑하고 외모도 준수하고 부모에게도 효도한 아주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신앙으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사랑하는 우리의 혈육입니다. 그러나 사랑한다고 해서 신앙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녀는 사람으로 키우되

엄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아도니아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평생 흠잡을 데 없어도 마지막에 아버지를 반역하는 아들을 효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잘 배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했을 텐데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잠29:15 참조).

수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왕상1:8-10)

아도니아의 반역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배울 것은 누구든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독과 브나야와 나단과 다윗의 37인 용사들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아도니아가 요압과 아비아달과 반역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대제는 이미 아도니아에게 기울어 이 사람들은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와 같이 하

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우려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신앙의 의리와 신앙의 정절을 지키겠다는 굳은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신앙의 정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목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대(왕상1:11-14)

다윗이 몸이 늙어 죽어갈 때 솔로몬이 뒤를 이어 왕이 되야 하는데 넷째인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정말 긴급한 상황입니다. 침상에 있는 다윗은 물론이고 솔로몬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은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의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급격히 해결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성도는 어려

운 상황을 만날 때 항상 선지자와 함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지금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밧세바에게 말해줍니다. 선지자가 대책을 말해주니 밧세바는 즉시 순종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는 세상 지식과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삽니다. 말씀으로 지혜를 얻으십시오.

금 무슨 연고로 왕이 되었나이까(왕상1:13-14)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지금 밧세바에게 솔로몬을 살리고 솔로몬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왕이 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정녕 다윗왕을 이어 왕이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무슨 연고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그전에 왕이 한 약

속을 붙잡고 왕에게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더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신이가 아들과 함께 무엇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하시고 계시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약속하신대로 응답해주시길 것입니다.

토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리이다(왕상1:14-21)

본문은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씩 지혜롭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밧세바가 다윗왕에게 고할 때에 나단 선지자도 함께 증거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밧세바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단 선지자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여 다윗왕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에스더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다윗왕

이 감쪽 놀라 “네가 어찌이냐?” 이 말은 히브리 원문을 보면 아주 감격스러운 대답입니다. “아니! 나의 사랑하는 밧세바야!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길래 이렇게 급히 나에게 나왔느냐? 말해 보거라 내가 들어주기를 원하노라!” 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구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지혜로운지요!

담임목사 청빙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에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참되고 신실하며, 성경적 개혁 신앙을 갖춘 목사로서, 영성, 인성 및 믿음의 본이 되며 젊은 세대 부흥과 세계선교 지향적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는 1977년에 창립되어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소속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선교의 비전을 실천하는 공동체로서 온 성도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한 삶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 1. 지원자격
 1.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2.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교단에서 인정하는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M.Div. 학위 취득자
 3. 목회경력: 담임목사, 선교사, 부목사 5년 이상(미국 목회 3년이상 경험자)
 4.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 선호
 5. 미국 내 목회 활동에 법적 문제가 없는 분

- 2. 구비서류
 1. 이력서
 2. 목회 철학과 비전 및 이민 목회의 사명 소견서
 3. 자기소개서 (신앙고백, 목회경험, 가족소개, 사진)
 4. 대학및 신대원 졸업 증명서 및 목사 안수 증명서
 5. 최근 1년 내의 2편-5편의 설교 동영상
 6. 목회자 2명의 추천서

3. 제출마감일
2018년 6월 15일
제출처: oc1newpastor@gmail.com

- 4. 기타사항
 1. 서류는 이메일로만 접수합니다. (PDF or WORD)
 2. 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반환되지 않습니다.

OC1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range County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담임 목사 청빙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중부노회 (Midwest Presbytery)에 소속된 빌립보 장로교회에서는
담임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하고자합니다.

청빙지원 자격

1.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APC) 교단에 현재 소속 되신 분, 혹은 NAPARC (North American Presbyterian & Reformed Council) 의 정회원 교단 (www.naparc.org 참조)에 소속 되신분
2. 2중언어(영어와 한국어)로 설교 가능하신 분
3.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소지하신 분

지원서류 및 설교

1. 이력서
2. 신학대학원 (Seminary) 졸업 증명서
3. 총회 목사 고시 합격 증명서
4. 목사 안수 증명서
5. 추천서 (목사 2 인)
6. 노회 소속 증명서
7. 설교 한 편
 - 1) 설교 원고-1500단어 내외 (영어)
 - 2) 설교 원고에 입각한 약 25분 길이의 설교 CD 또는 DVD 또는 USB (영어편, 한국어편 따로)
8. 가족 사진 한장

지원 절차 및 마감

1. 2018년 7월 16일 (우체국 발신일) 까지 위의 모든 서류와 설교 (CD또는DVD 또는 USB)를 빌립보 장로교회 청빙위원회(아래의 주소)로 우편 (USPS)으로 보낼것
2. 지원 서류와 설교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3. 청빙이 되신 목사님께서는 개별적으로 통보함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Korean Philippi Presbyterian Church
Pastor Invitation Committee
1969 E. Touhy Ave. Des Plaines, IL 60018

인/터/뷰 월드미션대학교 퇴임하는 송정명 목사

글로벌크리스천미션센터 출범...“사역 이어 나가겠다”

지난 2012년 월드미션대학교 2대 총장으로 취임하고 지난 6년간 한인커뮤니티의 한인신학교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나셨던 송정명 목사. 6월2일 거행된 월드미션대학교 학위수여식을 끝으로 총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송 총장은 총장 재임시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으로 다가온 일에 대해서 ATS 정회원 인가를 받은 것 등을 언급했다.

“월드미션대학교 총장임기는 3년이고 한번 더 연임이 가능합니다. 6년간 총장으로 있으면서 ATS 정회원 인가를 받은 것, 음악박사학위과정 개설과 오렌지 카운티 분교설립 등으로 학교위상을 높여준 것이 보람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학교기숙사 구입도 기억에 남는 뿌듯한 일이었습니니다. 특별히 음악박사과정에 많은 좋은 학생들이 들어와 공부하고 있는 것이 더욱 보람 있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 아쉬웠던 것은 간호대학 설립을 계획했었는데 실행하지 못한 것과 교수와 교직원들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을 기대한 것만큼 하지 못한 것이라며



월드미션대학교 총장임기는 3년이고 한번 더 연임이 가능합니다. 6년간 총장으로 있으면서 ATS 정회원 인가를 받은 것, 음악박사학위과정 개설과 오렌지 카운티 분교설립 등으로 학교위상을 높여준 것이 보람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학교기숙사 구입도 기억에 남는 뿌듯한 일이었습니니다. 특별히 음악박사과정에 많은 좋은 학생들이 들어와 공부하고 있는 것이 더욱 보람 있게 생각이 됩니다.

ATS 정회원 인가, 음악박사학위과정 개설, OC분교설립 이뤄 이민목회 42년...LA마라톤 요일변경운동 전개 기억에 남아

부분은 새로 취임한 임성진 총장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그 외에 한인신학교 총장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남가주만 하더라도 61개 한인 신학교가 운영되고 있다고 해요. 그중 ATS, ABHE에 정회원으로 인가를 받은 한인신학교는 10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즉 무인가 신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경우 학위수여를 받아도 학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한인신학교 총장협의회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리답니다.”

현역에 있으면서 기억에 남는 사역 중에는 LA마라톤 요일변경 운동에 앞장서서 전개해 나갔다고 했다.

“지금은 다시 주일에 LA마라톤이 열립니다만 10여년 전만해도 마라톤 코스가 한인 타운을 지나가게 되었거든요. 당시 한인 타운 내에 한인교회가 300개가 넘

변경 운동을 해서 한때 마라톤 목사로 불리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송정명 목사는 총장퇴임 이후의 사역에 대해 글로벌크리스천 미션센터(GCMC)를 출범해 다음 사역을 이어나가고자한다고 밝혔다.

“GCMC는 제가 대표로 섬기게 되고 글로벌메시아 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노형건 선교사께서 사무인사 신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경우 학위수여를 받아도 학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한인신학교 총장협의회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리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대해 송 목사는 월드미션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구체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제가 이민목회만 42년간 사역해왔습니다. 목회현장에서 느꼈던 것들이 총장으로 사역하면서 구체화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학교 출신의 어느 목사님이 장례예배에 대해 질문을 받았던 적

과정에서 고심하고 있는 현장목회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GCMC는 오는 12월경 비영리단체 등록과 한인 타운 내 사무실을 마련하게 될 계획이다.

동양선교교회 부목사로,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로 이민교회를 위해 사역했으며, 마라톤 요일 변경운동으로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사역, 은퇴 후 미주복음방송 사장과 미주성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그리고 월드미션대학교 총장으로 아름답게 사역을 이어왔던 송정명 목사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 사역할 수 있게 일거리를 마련해 주셔서 최선을 다해 이민교회를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며, 월드미션대학교 신임 총장인 임성진 목사로 인해 학교가 더욱 발전될 것임을 기대하며 기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신의 다음사역인 GCMC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역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기독교경영 전략

기독교경영 전략(Christian Business Strategy) 강의 (14)



제임스쿠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

그리스도인의 기업 경영 목적

기계와 자본의 발달은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을 낳았고, 사고방식과 생활양식 그리고 사회 구조의 모든 면이 뒤바뀌게 되었다. 자본 경제가 농업 경제를 대체하였고, 부를 창출하는 기업 활동이 사회생활의 거의 전부가 되었다. 영국과 서구 유럽의 산업혁명의 성공에 뒤이어 미국도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이제 산업화(Industrialization)는 다른 모든 나라들의 최우선 목표가 되었다. 세계 금융 시장에서 자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게 되었으며, 기업은 산업화의 주체로서 계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세속

적 자금을 주어야 하며, 세속적인 상황에서 기독교 신앙을 보여줘야 한다.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형태의 세속화도 용납될 수 없다. 모든 합법적인 행동-무역거래, 산업 활동, 자금 관리 등을 통한 부의 창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어떠한 세속적인 것도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방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기업가들은 그들이 창출하는 재화와 용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혜로운 계획과 관리를

서, 기업에서의 기독교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기업은 기업가로서 영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영성을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 안에서 삶의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며, 인간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신 유일하고도 복잡한 체계이다. 땅을 정복하는 것-다른 표현으로는 정치적으로 환경을 관리하고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창조 당시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신 특권이며 책임이다(창 1:26-30: 사8편). 이것은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이며

세속주의란 종교의 사유화...기업 영성 갖춰야

①하나님 안에서 삶의 통일성 ②기업구조의 필요성 인식

적 인본주의, 회의적 물질주의, 상대적 실용주의가 서구 기업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며, 교육과 문화도 이러한 영향을 받았다. 수익성(Profitability)이 모든 것을 정당화한다는 사고가 지배적인 가치관이 되었으며, 신앙이 깊은 그리스도인 기업가들도 신앙과 기업 활동을 서로 분리된 삶을 사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늘날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는 경영대학은 불성실과 탐욕의 사회, 경제적 가치를 가진 환경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이들 경영대학은 전문 지식의 전달이라는 관점에서는 탁월하지만 도덕, 윤리적 측면에서는 거의 바닥상태다.

이러한 바닥상태를 이루는 것은 세속화(Secularization)라고 한다. 세속주의(Secularity)란 말의 의미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사유화(Privatizing)하는 것이다. 사유화란 종교를 개인적인 취미 영역으로 좁히고, 삶 전체를 지배하는 종교의 역할을 배제한 것으로 이것은 극복해야 한다. 성실한 기독교 기업의 활동은 사회에도

통해서 적정 이윤(Appropriate profit)을 추구한다. 이러한 적정 이윤은 기업의 활동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고, 적정 이윤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못할 때 기업은 파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활동에서의 영성

기업 활동에 있어서도 영성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적 기반을 가지지 않는 회사에서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은 수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직면하게 된다. 때로는 회사는 직원들이 회사에 전적으로 충성할 것과 회사 규정에 순종할 것을 우선적으로 요구한다. 때로는, 고객과 동업자 및 회사 관련자들과의 적절한 타협이나 공정하지 못한 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현실은 기독교 기업과 그리스도인들도 실패 또는 파산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기업가는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관심을 가지고 모험적으로 전문적인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이웃에 봉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인간 개개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란 것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된 삶의 목적인 “이웃을 돕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을 기업 활동을 포함한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시키는 영성이 필요하다.

두 번째, 영성은 기업 구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점점 크고 복잡한 산업 및 무역 거래는 세계적인 기업구조를 가지게 되었고, 다양한 관리와 금융적 지원이 필요한 형태가 되었다. 기업의 구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이러한 기업구조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조직에서도 청지기적 사명을 다하여서, 기업구조에서의 관리자적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책임을 완수하여 그러한 기업을 성화시켜야 한다. 만약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비현실적인 삶이 된다. 이러한 비현실성은 절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 회에 계속)

dr.jameskoo@yahoo.com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 ✓ 현수막 | 천막
-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 프로모션 상품
-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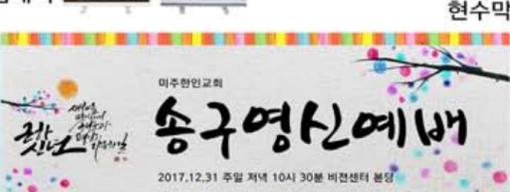
X 배너 거치대



벽걸이 포스터



롤업배너



현수막



미디어벽



2018 교회표어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교회
 나는 모든사무를 다하는 자라 고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리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5)

미주한인교회
송구영신예배
 2017.12.31 주일 저녁 10시 30분 비전센터 본당

성탄 축하예배 Merry Christmas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